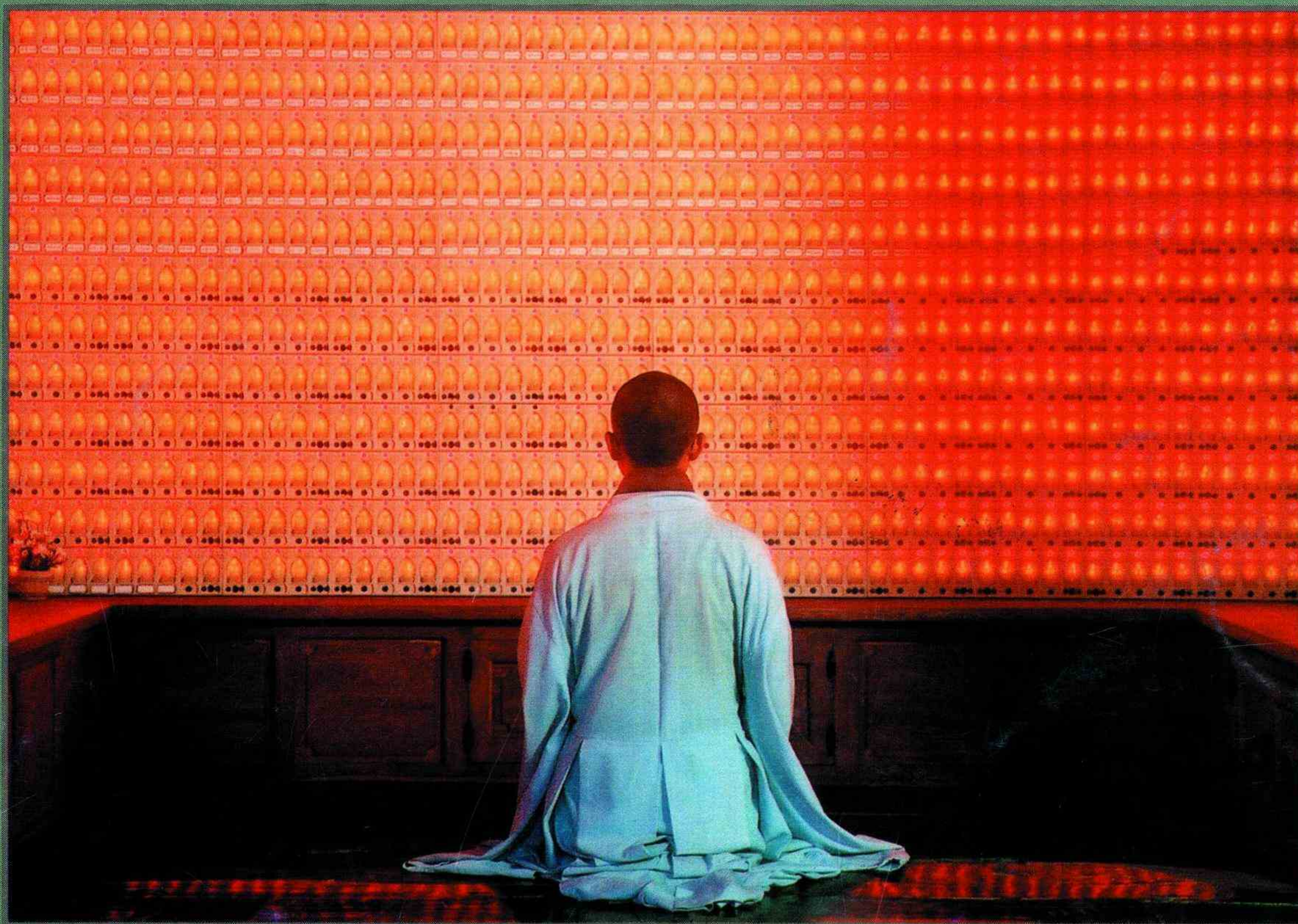


# 定慧社

제23호 불기 2545년 여름호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 참회(懺悔)

‘대중스님들의 시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참회합니다.’

다소 상기된 얼굴을 한 원주스님께서 아침공양 때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중에게 삼배를 올리며 참회하였다.

안거 기간 중 스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으니 누가 보아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님들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소임 살아주십시오. 이만 물러가십시오.’

위엄이 서려 있는 대중의 침묵 속에서 나온 짙막한 세 마디 격려의 말이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강원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공사(公事) 시간.

‘아무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威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윗반스님에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삼경 이후 한 시간 동안 지장전에서 자참(自懺)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이 모여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윗반 스님들은 예리한 눈초리로 그것을 빠짐없이 지적해 낸다. 여지없이 떨어지는 참회.

그러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참회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큰 잘못이 있을 경우 소임자가 참회의 정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참회의 경중을 판단하도록 한다. 송광사강원에서는 이것을 ‘자참(自懺)’이라고 부른다.

이 자참이란 제도가 처음 시작 될 때는 작은 잘못으로도 3일 혹은 일주일간 참회하겠다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아니면 3일, 가뻔하게 절이나 하지 뭐!’ 하는 식으로 변하고 말았다. 작고도 사소한 일까지 너무 많은 경책을 해서였을까?

오랜 동안 참회하는 데는 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왔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절을 하는 횟수와 참회하는 마음은 무관한 듯이 보인다. 대중 앞에서의 삼 배만으로도 자신을 끝없이 낮출 수 있고, 밤새워 삼천 배를 한다 해도 오히려 아상(我相)만 높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요사이 사집반에서는 수업시간에 외워 바치지 못하면 아랫반의 고무신을 닦아야 된다고 한다. 강주 스님께서 개발한 신중 참회법이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그 효과만큼은 확실하다. 남부끄러워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송광사에 이런 참회법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 스님, 12시부터 2시까지 효봉영각 앞 잔디밭에 풀 뽑으십시오. 5명입니다.”

# 定慧社

제 23호 불기 2545년 여름호



발행처/ 송광사 강원  
발행인/ 智雲(講主)  
편집인/ 도정(입승)  
편집장/ 도현  
편집/ 효산, 해진  
사진/ 홍서

발행일/2545년 8월 1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5302

조계의 물소리	편집부
사진 속 이야기	편집부 · 2
특별기고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다	일선 · 4
교수논단	
그릇된 수행방법을 경계한다(2)	지운 · 6
기획연재	
6세조사 원감국사 충지	편집부 · 13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18
지대방이야기	
막걸리 스님	도현 · 20
내 마음 속 시소	효산 · 22
박복자	홍전 · 24
삼전사기	지명 · 25
정혜탐방	정토회 지도법사 범륜스님 편집부 · 27
경전 한구절	근본 편집부 · 34
목우단상	
차와 휴식	성경 · 35
지족	대정 · 36
내가 사는 송광사 강원	석원 · 38
10분간의 사유	남전 · 39
쪽지 자경문	동안 · 40
바람소리 한자락	
은사스님께	해진 · 42
보리 이야기	정공 · 44
학인소고	
覺林菩薩의 讚歎	연일 · 45
大慧스님의 無字話頭 參究法	일조 · 48
정혜사 안내	
소년소녀 후원	50
심장병 후원	51
편집후기	52

사진 속 이야기





### 老僧失杖之歎

道成堂 마루 끝에 뉘 놓고 앉은 스님  
스님도 근심 있어 한심 짓고 계신게요  
黃昏에 집팡이 잃고 그를 서러 하노라

『인암시조선』 송광사순례시조 中

시·사진 / 편집부

얼마 전만 해도 三時 예불에 빠짐없이 나오시던 노스님 덕에 학인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至心歸命禮를 외쳤습니다. 그런 노스님께서 요즘은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어서 다시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다

일선(一善) / 송광암 암주

거북의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 위로 성난 불길처럼 사나운 태양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 가슴에 피멍이 든 농부가 마른 하늘을 쳐다 보다 망연자실하여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급박하게 흘러 나온다. 앞으로 열흘이 고비란다. 그 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한단다.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란다. 저수지도 밑바닥을 드러내고 먹을 물마저도 없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에서는 민노총이 연대파업을 시작했고, 항공사가 파업에 돌입하여 비행기가 날지 못하여 성난 시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한다.

세상은 지금 온통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천지를 삼켜 버릴 듯이 번지고 있다. 범화경에서 말씀하신 삼계(三界)의 화택(火宅)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전국의 들녘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숨가쁜 이 순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없이 천류(遷流)하는 번뇌의 불길이 업력(業力)을 못 이겨 흐르는 것을 보면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시주 밥 한 그릇에 중생들의 피가 여덟 사발이라고 하니 수행을 게을리 해서 안된다고 다짐했던 초발심이 해가 갈수록 약해지니 하늘을 원망하며 죽어간 농부의 심정을 가히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여 죽을 수는 없다. 물을 찾아야 한다.

언구(言句)에 의심(疑心)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된다. 창군(創軍) 이래 처음 군인들이 총동원령이 내려져 가뭄 극복에 동원되어 헛불을 들고 관정(灌井)을 뚫어 갈라진 헛바닥처럼 타 들어간 논에 물을 대고 있다. 민·관·군이 함께 손을 잡고 양수기에 호스를 연결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퍼 올리려는 모습이 눈물겹다.

절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며 기우제를 모시고, 기도를 올리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도 쑥국새의 피울음처럼 처량하게 들려온다. 그간 출가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만 살아서 물이 이렇게 귀한 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물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UN은 우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몇 배의 물을 쓰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한다.

행자시절 흐르는 물도 아껴 써야 복이 된다고 호되게 꾸지람을 주시던 은사스님의 말씀이 이제야 귀한 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사찰에서도 노스님들의 검소하고 소박한 정신을 이어받아 물을 더욱 아껴 쓰고 일차적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절에서 나오는 감로수(甘露水)가 세상 마지막 물이기 때문이다. 옛 스님들의 전해오는 말씀에도, 계행(戒行)이

투철하고 수행을 잘한 스님들이 모여 살게 되면 말랐던 물도 흐르고, 수행하지 않는 덕(德) 없는 스님들이 모여 살게 되면 물길도 끊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다. 각자 자기의 수행을 점검해 볼 일이다.

오늘도 고대하던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농민들의 마른 가슴이 점점 타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열흘이 고비다. 주문처럼 되뇌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 생사의 갈림길이 열흘 남았다고 하는데, 이때를 당해서 머리 깎은 수행자라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우선 지나온 수행길을 되돌아보며 살점 하나 하나 칼로 도려내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참회하고 싶다. 물을 헤프게 쓰고 지리산 댐을 계획하며 사찰과 수행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업중생의 어리석음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

수행한다고 하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기만 하다. 삼천 배를 한다고 하면서 이기심으로 숫자에만 집착하여 아상(我相)을 냈으며, 일어나는 번뇌를 절을 통해서 반조(返照)하려 하지 않고 누르려고 하여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른다. 염불한다고 하여 기복에 치우쳐서 헤매고 스스로 근기가 낮다고 방황하였으며, 마음을 떠나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고 고집하여 염불하는 자를 살피지 못하였다.

또한 화두한다고 하면서 염불하는 자를 낮은 근기라고 무시하였으며, 위빠사나 수행은 화두참구보다 수승하지 못하다고 차별심을 냈으며, 화두를 사랑(思量)으로 분별하여 알려 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고요한 경계에 집착하여 허송세월하며 얼마나 많은 시주 밥을 축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돌이켜 보면 이런 대립적인 견해들은 머리에 열이 올라 상기가 되어 눈이 충혈되게 하였고, 수행자들 간에는 서로의 화합을 깨트리며 서로를 질시하는 불길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랑분별을 버리고 백 년만의 가뭄에 밀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진 헛바닥처럼 처절한 모습을 드러낸 저수지처럼 진실해지고 싶다.

불법 문중에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부처님 제자들끼리는 수행에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 싸워서 안된다. 화합하지 못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목 타는 들녘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다만 보조국사님의 말씀처럼 화두참선, 정혜쌍수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길이 서로 다르더라도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한바탕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참회를 마치니 상기가 내리고 충혈된 눈이 맑아지고 수승화강(水昇火降)하여 온몸에 기운이 흐른다. 머리에 물 기운이 돈다. 비가 오려나 보다.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이면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가뭄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한다. 유정무정 일체중생이 깨달음의 비를 흠뻑 맞으며 한바탕 춤이라도 출 수 있으면 좋겠다.

삼계의 화택(火宅),  
탐진치 불 속에서  
수행자리 점검하며  
진참회하니  
수승화강,

일체중생

깨달음의 비  
흠뻑 맞으소서.

## 그릇된 수행방법을 경계한다(2)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 1. 서론

마음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고 나서, 불교의 바른 수행방법과 깨달음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자세히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業)과 몸의 습(習)을 없애려 하는 수행방법에 대하여 불생멸(不生滅)을 본성으로 하는 불교의 올바른 수행방법을 통하여, 폭력에 길들여졌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며, 또한 마음수련회에서 제시한 수행방법에 대해 그릇된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마음수련회의 수행방법은 대략 마음의 업을 제거하고, 몸의 습을 없애버려서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진 전인완성의 단계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業과 마음, 習과 몸, 잘못된 수행법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1) 업(業)과 마음

업(業)은 생각, 입,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업(業)이라고 한다.

생각의 움직임은 업(業)이라고 하는데 거친 움직임과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 감각으로부터 의식, 잠재의식과 아뢰야의 미세한 심리 작용까지 모두 업이다. 특히 아뢰야식은 주객 미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의식의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마음의 흐름도 업이다. 사람의 마음을 의업(意業)이라 하며 대상을 따라 움직이며 일어나는 생각과 기억을 일컫는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맡고, 입으로 맛보며, 몸에 느끼는 촉감이 모두 業이며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되는 경험 일체는 아뢰야라는 최심층의 무의식에 종자(種子)로서 입력된다.

이 저장되는 씨앗(種子)을 명언종자(名言種子)라고 하는데, 선악의 윤리성을 띠게 되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업종자(業種子)가 된다. 씨앗은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기억'으로 나타난다. 일단 보고 듣는

일체는 모두 씨앗으로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이것이 다시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를 종자가 현행(現行)으로 나타남(種子生現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재에 나타나는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이 동시에 아뢰야식에 씨앗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을 함과 동시에 말을 듣게 되는데, 귀로 듣는 그 말(현행)이 종자로서 아뢰야식에 다시 저장된다는 것이다(現行熏種子).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모두가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 현행熏종자(現行熏種子)라는 마음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수련회에서는 기억을 억지로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영상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기억은 영상인데 그 형상만 잡아서 던지려고 했지 그 영상의 흐름 자체를 중지시키거나 끊어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



본 원고는 지난 호에 이어, 항간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그릇된 수행방법에 대한 경책의 글이다. 바른 깨달음은 바른 수행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법의 실상을 몰각한 수행은 막중한 업과(業果)와 함께 정법에서 멀어질 뿐이니, 이에 불교의 올바른 수행방법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이다.

기억을 던지고 없애는 방법은 마치 기억이 없어진 듯하지만, 던지고 없애는 행위 자체가 종자로서 다시 기억되어지므로 실제로는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기억을 던져 확실히 없앴다면 기억상실증과 같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즉 던지고 버림에 의하여 없어진 듯 여기는 종자가 다시 현행하고(種子生現行), 동시에 현행한 종자가 자기 마음에 역으로 심어지는(現行熏種子) 순환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므로, 던지고 없애는 업이 남게 된다.

던져 버리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이므로 또한 업이다. 깨달음이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업이 사라지면 마음이 공적(空寂)하여 부동(不動)이다. 그러나 던지고 없애는 업이 남아 있으므로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다. 마치 물결치는 수면에는 만 가지 모습이 비치지 않고 수면 밑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 2) 찰과 몸

같은 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습(習)이라고 한다. 종자생현행, 현행熏종자(種子生現行, 現行熏種子)에 의해서 업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습이다.

마음수련회에서는 ‘사람의 마음

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고 체험한 일을 자기 몸에 기억으로 담아두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여 연상법(聯想法)으로 몸을 버림으로써 습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몸은 마음의 영상물일 뿐, 기억이나 경험을 축적할 수 없다. 몸은 마음의 인식대상이다. 몸이란 단지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몸은 아는 성질이 없으며 과거의 기억이나 삶의 기록을 담아둘 수 없다.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는데 그 감각을 통해서 몸의 무게, 형태, 색깔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눈을 뜨고 몸의 형태나 색깔이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이라는 마음의 스크린에 몸의 형상이나 색깔이 비춰진 것이다.

또한 몸은 전생업인(前生業因)의 결과물로서 선(善)도 악(惡)도 아닌 무기(無記)이다. 결국 몸도 마음의 표현이다. 몸의 습이란 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상물로서 몸이라는 대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몸을 죽이고 버리는 연상법은 업을 없애기 위하여 업을 짓는 ‘마음 연상법’과 마찬가지로 습을 없애기 위하여 몸을 죽이고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또 다른 습을 계속 만들게 된다.

## 3) 잘못된 수행법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사람 마음과 몸을 죽여 業과 찰을 없애는 수행방법은 일단 수행의 대상을 없애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즉 폭력적 수련법의 기본은 불평등에서 시작함을 말한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바탕이 평등이다.

그 사람이 진리를 깨치든 못 깨치든 간에 모든 법은 평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에 수행방법은 그 평등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때문에 중생구제 또한 집착이 없는 평등심에서 일어난 자비심으로 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행의 원칙으로 ‘세간상(世間相)을 부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록 중생의 마음과 습(習)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없애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연상법(聯想法) 자체가 버리기 위한 형상(形象)을 취하므로 분별(分別)이 일어난다. 죽이고 버리며 부순다는 분별이 일어난다. 연상법으로 폭탄이나 칼 등의 형상을 연상하여 대상의 상을 파괴하고 없앤다. 그러나 이 연상의 내용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연상 자체가 생각이고 생멸(生滅)하는 생사법(生死法)이며 마음이며 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법의 공(空)한 모습은 파괴되지 않는다. 법은 평등하

왜 잘못된 수행법이라 하는가?

진리의 바탕은 평등이다. 평등한 일체법은 수행의 근본이며 자비의 기처(起處)이다. 쏘한 일체법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없애고 부술 대상이 있다 함은 불평등이고 분별을 세운 무지(無智)의 소치이니, 법의 실상을 몰각한 그릇된 수행법이 아닐 수 없다.

.....

여 죽이고 버린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부순다고 해서 법을 깨치는 것이 아니다.

법은 공성(空性)이므로 죽이고 버리고 부술 수 없다. 법의 모습은 분별을 떠난 모습(離分別)이므로 분별이 없는 관(觀; 無分別)을 통해서만 상응(相應)할 수 있다. 곧 관(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과 습이 본래 공함을 알면 되는데 마음수련회는 이러한 도리를 모른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깨달음이란 業에 의해 조작된 깨달음이다. 그래서 업이 바뀌면 깨달음도 그 순간 없어지므로 항구적이지 않다. 또한 죽이고 버리는 업과 습을 분별하는 자아가 남게 되어 계속적인 분별을 한다.

업은 인과법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를 불러오는데, 죽이고 버리는 업은 살생, 살인의 업이므로 그에 응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잘못된 수행법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마음수련회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의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표 참조)

마음수련회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이 업(業)이므로 이 업(業)을 제거하기 위해 밖으로 던져버리며, 다시 깎을 제거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몸을 잔인하게 죽이고 버림으로, 최종의 전인완성의 깨달음을 얻는다

	의식상태	몸상태	기간
일반인	· 사람마음(관념, 업, 개체의 마음, 개체의식)과 몸(관습)에 의해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됨	· 사람마음(관념)과 몸(관습)에 의해 기혈이 막혀 병에 걸리기 쉬움	
지성인 (무정)	· 본성을 알아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됨	· 본성을 깨달아 기공이 나오는 등, 기혈이 풀리면서 건강이 호전되기도 함	1주일
입성인 (무정)	· 사람마음(업)이 없어져 본성에 들 · 일체상이 없어짐 · 아직 습이 남아 있어 불완전함	· 마음이 없어짐에 따라 얼굴에 뭉쳐 있던 근육이 풀어져 혈색이 돌며, 긍정적 삶을 영위	1~2주일
전인과정 (유정)	· 우주가 내 안에 있음을 앎 · 삶과 죽음이 하나로, 영원히 사는 것을 앎 · 아직 개체의식에 머물러 있음	· 관념(업)과 관습(습)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오래된 병들이 저절로 치유되기도 함	1~2주일
전인완성 (유정)	·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삼라만상 일체가 하나 됨 · 막힘이 없고 걸림 없는 대자유의 삶을 살며 우주의 주체자가 됨 · 行을 하나, 행 속에 있지 않게 됨 · 전체의식으로 남을 위해 살게 됨	· 얼굴에 각이 져 있거나 어두운 면 등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변하고, 뼈의 구조 등 몸 전체가 완전한 균형을 되찾게 됨	3~6주일

인간의 마음과 몸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일 수 있겠는가?  
공성(空性)을 알면 업도 업보도 짓거나 짓는 자가 없이 모두 연(緣)으로부터 일어남을 안다.

.....

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과 몸을 없애는 것이 이들의 깨달음이다.

이를 단계별로 나누면 지성인, 입성인, 전인과정, 전인완성의 네 과정으로 나뉘며 지성과 입성과정은 사람의 마음(관념)을 닦고, 전인과 전인완성은 사람의 몸(관습)을 닦는다.

#### ㄱ. 지성인 단계

앞에서도 대략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을 던지고 버리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업의 흐름을 도저히 볼 수 없다.

업으로써 업을 제거하면, 제거하는 업이 다시 업으로 남아 근본적으로 업이 제거되지 않는다. 즉 업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업을 쌓는 모순이 생긴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심리작용은 미세한 흐름만 있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식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집어서 던질 수 없다.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던지고 없애는 행위가 새로운 씨앗으로 계속 심어져 마치 기억이 없어진 듯 하지만, 던지고 버림에 의해서 없어진 듯 여겨졌던 종자가 다시 현행하게 되고, 동시에 현행한 종자가 다시 자신의 마음에 심어지는 순환적 흐름을 계속하게 된다.

소위 대각을 성취했다는 사람조

차 기억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 참으로 기억을 던져 확실히 없앴다면 기억상 실증과 같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입력되어 있지 않는 정보는 아무리 끄집어내어도 나올 것이 없어 대상에 대한 이해와 앎이 없어서 인간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진 듯하지만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기억에 붙어있는 감정이 제거될 뿐이다. 이것은 불교의 참회기도와 같은 원리이며 정신질환자가 의사에게 과거 기억을 토로함으로써 과거 기억에 묻어 있는 감정을 털고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던져 버리는 행위가 業인 줄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행위가 거칠고 폭력적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 미세한 흐름을 잡아 낼 수 있는가? 던져버리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인 업이다.

던지고 없애는 업이 남아 있으므로 마음의 본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마음이 거울같이 깨끗하거나 물결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장(書狀)』에서는 ‘不動則虛明自照’라고 하였고, 『기신론』에는 ‘覺義者等虛空界’라고 했다. 허공은 움직임이 없듯이 마음의 부동이

곧 깨달음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던져 버리는 연상의 생각은 업이기 때문에, 이 업에 의해 나타난 몸과 우주는 공해질 수는 없다. 마음의 본성이 공적(空寂)하여 얻어야 할 생각이 없는 무소득(無所得)임을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물건같이 던져 마음의 業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포함을 보게 되면, 몸과 우주가 空해져서 一致하니 일치하지 않으니 말할 필요가 없어져서 기억을 던져 버리거나 몸을 죽이고 버리는 연상법을 쓸 필요가 없다. 업의 문제는 던지고 버림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다.

화엄경의 계송에서도 설하듯이 업과 업보에는 지음과 짓는 자가 없어, 모두 연(緣)으로부터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 ㄴ. 입성인 단계

‘사람의 마음은 ‘지난 삶이 기록된 일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고 체험한 일을 자기 몸에 기억으로 담아두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저장된 관념과 관습이 자신의 틀이 되어 진정한 자기를 구속한다’ ‘7일간의 초대’에서 밝힌 마음의 정의이다.

그러나 몸은 아는 성질이 없다. 그러므로 몸은 삶을 기록할 수 없

수행은 世間相을 부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업과 습을 없애는 폭력적인 방법은, 마치 파도의 물거품을 바닷물과 다르다 하여 끝없이 걷어내려는 것과도 같다. 폭력적인 방법은 폭력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으로 상처만 입을 뿐이니 業이라 한다.

.....

다. 단지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는데 그 감각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몸의 형상이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몸은 전생업인(前生業因)의 결과물로 선도 아니고 惡도 아닌 무기(無記)이다. 따라서 몸이란 단지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수련회의 수행과정 중에 몸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몸이 허공같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이고 버리는 생각으로 몸의 사라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곧 몸이란 마음의 영상물이기에 연상을 통하여 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몸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으로 담아둔다면 이러한 몸의 사라짐을 통하여 습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습은 몸의 없앰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삶을 몸에 기억으로 담아둔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기억도 사라져 다음 생에서는 이 기억을 이을 수 없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예를 볼 때 이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몸은 습관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에 비쳐진 영상물일 뿐이다. 그것이 몸의 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몸의 본성이 본래 환(幻)같고 꿈임을 알고 무상(無常), 공(空), 무아(無我)를 관(觀)할 뿐

이다. 몸이 본래 空하므로, 죽이고 버리는 것은 마치 허공의 연기나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연상으로 죽이고 버림은 모두 마음에 경험으로 축적된다.

문제는 죽이고 버림이 습이 될 때 그 파장은 자기 한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까지 영향이 가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그 영향이 절대적이다. 처음부터 평등한 법을 불평등하게 보고 폭력적인 수행을 통하여 살생업과 살인업을 기르는 것이다.

관법수행(觀法修行)에서는 단지 무상, 공, 무아등의 몸의 본질을 철저하게 관찰하여 업과 습을 제거하고 있다. 간화선(看話禪)에서는 몸이라는 영상물을 일으키는 원인인 번뇌망상을 화두(話頭)로 철저하게 들이대어 타파하여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다.

마음 수련회는 몸의 본성을 알지 못하여 몸을 생각으로 죽이고 버리는 것이 수련이라 하며 몸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마음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 ㉔. 전인과정 단계

이 단계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업과 습을 제거한다. 업과 습이 모두 제거되어 사람 마음과 몸이 없어지고 몸이 사라져 모든 병이 치유

된다고 한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되는 생사일여를 깨닫는 단계라고 한다.

우선 몸이 사라짐으로써 생사일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자.

몸이 생노병사하는 것이니, 몸이 사라진다면 생사가 없어져 생사일여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생사일여라는 것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를 말한다. 마치 재속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 다시 불이 일어나듯이 미세한 망념이 남아 있으면 다음 생에 모태(母胎) 속에서 다시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 내게 되므로 한 생각 일어남이 생(生)이요 한 생각 사라짐이 사(死)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몸이 사라졌으나, 죽이고 버리는 행위로 인해 마음의 움직임이 남아 있게 되므로 생사일여의 깨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이고 버리는 행위가 멈춰지고 망념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알았을 때에야 그 앎이 바로 깨달음이며 비로소 생사일여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기를 ‘覺心初起心無初相’이라 했듯이 무의식의 미세한 최초 한 생각이 일어남을 각(覺)했을 때 비로소 무명(無明)이 소멸하고 무명에 의한 업의 완전소멸이 이루어져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다.

정각(正覺), 바른 깨달음의 여섯 가지 조건이 있으니  
 첫째 발심이요, 둘째 신심(信心)이며, 셋째 스승이요,  
 넷째 마음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요, 다섯째 관(觀) 또는 간(看)하는 것이요,  
 여섯째 법(法)이다.

.....

또한 사람의 마음과 몸이 사라진 뒤에도 죽이고 버리는 행위(業)를 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므로 죽이고 버리는 업의 조작을 끝없이 해야 한다. 전인완성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죽이고 버리는 행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불생멸하는 마음, 즉 관에 의해서 몸을 정념하면 몸이 허공처럼 없어진다. 이것이 올바른 관찰이며 올바른 몸 사라짐의 체험이다. 관에 의하지 않고 죽이고 버리는 행위는 살생의 업을 짓는 것일 뿐이다.

ㄷ. 전인완성

‘아(我)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삼라만상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완전 사라짐으로 해서 무아(無我)가 되어 몸에 의한 경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단계를 말한다.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삶을 살며 우주의 주체자가 됨’과 ‘행을 하나 行 속에 있지 않게 됨’은 몸이 사라짐으로 해서, 行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없음을 말함이다. 즉 행위만 있지 몸의 형태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전체의식으로 남을 위해 살게 됨’은 몸이 완전 사라짐으로 인해 삼라만상 일체가 하나되므로 해서 개체가 없게 되고 또한 의식도 개체에서 전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죽이고 버림으로 몸이 사라짐을 대각(大覺)이라 하며 무아(無我)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몸이 사라짐에도 두 가지가 경우가 있다. 몸의 형태가 사라졌으나 아직 감각이 남아 있는 것과, 형태뿐 아니라 감각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무아(無我)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형태가 없어져 몸이 앞뒤가 탁트였더라도 감각이 남아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남아 있으므로 무아(無我)가 아니다.

즉 마음수련회에서 주장하듯이 꺾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며 몸의 감각마저 사라졌다고 해도 호흡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미세한 호흡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직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무아의 체험이 아니다.

또한 몸이 사라져 우주와 하나 되려면, 우주라는 형태가 있으면 안되므로 인위적으로 몸을 죽이고 버리는 마음을 써서 우주를 파괴하여야만 우주와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마음수련회에서 주장한 우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조작에 의한 경지이므로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우주와 하나되며 우주가 내 안에서 부서져서 대각(大覺)이라고 하지만 부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이 될 수 없다. 죽이고 버리는 마음작용이 멈추지 않는 이상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이들의 깨침은 業에 의해 조작된 깨달음이다. 부수고 버리는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種子生現行 現行熏種子의 훈습(熏習)에 의해서 무아(無我)의 정반대 현상인 영원불멸의 신아(神我)가 된다. 아집(我執)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결국 神我 또한 바로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에 의한 業의 소산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른 수행 방법과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정각 즉 바른 깨달음에는 여섯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發心이요, 둘째 信心이며, 셋째 스승이요, 넷째 마음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요, 다섯째는 觀 또는 看하는 것이고, 여섯째 조건은 法이다.

넷째 조건인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實體가 없으므로 분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생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래의 마음과 相應할 수 없다. 상응하려면 생각의 움직임이 없는 마음 즉 觀 또는 看으로 해야 한다.

죽이고 버리는 행위는 마음의 움직임이므로 안된다. 즉 불생멸(不生滅)의 마음으로 가야만이 不

정법수행은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행의 개념과 수행법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 수행에서도 정견(正見)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생사(生死)가 곧 열반(涅槃)이고 번뇌(煩惱)가 바로 보리(菩提)이며 허깨비 몸과 거짓 마음이 본래 진실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緣起法)은 외도(外道)의 사견을 척파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유일무이한 등불인 것이다.

.....

生滅의 불지(佛智)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불생멸의 마음이 觀이며 法을 깨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다. 오로지 無分別로서만이 分別을 떠난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觀이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인위적으로 규명할 수 없으며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불생멸(不生滅)의 마음인 직관(直觀)은 분별망상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觀에 의해서 번뇌망상도 사라지고 몸도 空해지는데 空은 不動이며 觀하는 마음도 움직이는 분별이 없는 不動이므로 觀과 空이 불이(不二)로 상응한다. 비로소 觀이 不生滅의 마음으로 전환되어 무분별의 반야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야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곧 法이요 法이 곧 마음임을 말하며, 세간상(世間相)을 부수어서 실상(實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상 우주 그대로 환(幻) 같고 꿈 같이 있는 실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죽이고 버리는 행위인 업으로 나타난 깨달음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본디 몸은 허공처럼  
비어 있어 걸림없거늘  
미운 마음 원수보듯

온갖 방법 동원하여  
몸 죽이고 얻은 깨침  
허공 위에 허공이라  
本空에 空을 더하니  
허공에 핀, 피빛의 꽃이로다.

수문장이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듯  
문제 있는 사람 자세히 조사하듯  
있는 몸 그대로 지켜보기만 해도  
구름에 가린 달 모습을 드러내듯  
본래 비어 있는 모습 드러나리라.

본래 땅의 모습 비어있거늘  
누가 어리석게 땅을 파서  
빈 공간 만들었다 자랑할까?  
그대는 땅을 판만큼 빈 공간이 나온다  
하니  
그것이 진실타 좋아함은 꿈속 잠꼬대라  
생각을 버려서 열반을 구하고  
형상을 부수어 실상을 구하니  
꿈속의 꿈인 줄 알지 못하고  
大覺을 이루었다 게송만 짓는구나

번뇌망상이 곧 열반이며  
世間相은 본래 진실한 모습이라네  
말 떠나 생각이 끊어지면  
이런 이치 저절로 드러나니  
이것이 수행의 원칙이라네.

### 3. 결론

이상으로 마음수련회에서 주장하는 수행 방법과 수행 단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수행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밝혀 보

았다.

부처님 당시에 업을 몸에 달라붙어 정신을 장애하는 요소로 착각한 외도가 있었으며, 불법 안에서도 사물을 나누고 쪼개어 공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

모름지기 정법수행은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행의 개념과 수행법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 수행에서도 정견(正見)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생사(生死)가 곧 열반(涅槃)이고 번뇌(煩惱)가 바로 보리(菩提)이며 허깨비 몸과 거짓 마음이 본래 진실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緣起法)은 외도(外道)의 사견을 척파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유일무이한 등불인 것이다.

바라는 바는 분별과 파괴로 얼룩진 수행법의 샷된 소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한치도 어긋남 없는 인과의 그물과 쉼 없이 천류(遷流)하는 윤회의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에는 업으로 하는 수행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므로 바른 수행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불일 보조 국사 이래 대대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제6세 원감국사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기획연재

6世 祖師  
원감국사 충지



‘봄 찾다 이른 곳이 뜰 안의 매화’ 라고 했던가.  
 결국 박물관장스님과 당도한 곳은 취재팀이 맨 처음 왔던  
 묘적암터였다. 옛 우물과 부서진 기와들이 흩어져 있던 그 자리...  
 다시 본래 그 자리에서 저쪽 능선으로 에워 돌아야만  
 선사(先師)의 앉으신 터에 맞닿을 수 있었다.  
 미끄러지고 헤매이던 삼일간의 행장(行狀) 끝에,  
 법음(法音)처럼 시원했던 바람과 툭 트여 한 치의 걸림도  
 없었던 선사(禪師)의 풍광(風光)을 감히 적어 올린다.

스님의 휘는 충지(冲止)이니 본래는 법환(法桓)이  
 였고, 속명은 원개(元凱) 자호는 복암노인(宓庵老  
 人) 속성은 위(魏)씨이며, 전남 장흥군 정안에서 태  
 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위소(魏紹)인데 벼슬이 호부 원  
 외랑(戶部 員外郎)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원방 대부  
 인 송씨(原邦 大夫人 宋氏)니 사부 원외랑(史部 員  
 外郎) 자옥(子沃)의 따님이시다.

고종(高宗) 13년(1226) 병술(丙戌) 11월 17일에  
 태어났고 9세 때 비로소 글을 배웠는데 총민함이  
 무리에서 가장 뛰어나 모든 경(經)과 사서(史書)를  
 눈에 지나는 대로 외웠으며 또 글과 시(詩)를 잘 지  
 어 17세에 사원시(司院試)를 마쳤고 19세에 과거에  
 나아가 장원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영가서기(永嘉書  
 記)의 관직을 제수 받아 복무하던 중 일본에 외교  
 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여 국위를 널  
 리 다른 나라에 까지 떨쳤다. 그 뒤 귀국하여 관위  
 가 금직옥당(禁直玉堂)에 올랐는데 그 일의 매무새  
 가 원숙하고 말과 행동이 사려 깊어서 당대의 유가  
 (儒家)의 석학(碩學)과 학자들도 모두 마땅히 존경  
 함에 이르렀다.

스님은 소년시절부터 선교(禪敎)에 의지하여 깊  
 이 불승(佛乘)을 간절히 생각하여 오더니 자주 부  
 모님에게 출가(出家)의 뜻을 여쭙었으나 그때마다  
 허락을 얻지 못하여 좌절당하곤 하였다. 하지만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더니  
 29세 되던 해 선원사(禪源寺)의 법주이신 원오국사  
 (圓悟國師)에게 나아가서 출가의 뜻을 아뢰고 허락  
 을 받아 득도(得度)·수계(受戒)하였다.

이어 행로(行路)를 남쪽으로 돌려 여러 법석(法

席)에 참례하며 삼장(三藏)의 가르침을 이수하였는  
 데 워낙 총명이 뛰어나서 머무는 강석(講席)마다  
 항상 뛰어나 대중의 모범이 되었다. 삼장의 가르침  
 을 이수한 스님은 이어 제방선원(諸方禪院)에 다니  
 면서 참선에 뜻을 모았는데, 이 때의 스님 행색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허수아비인 양, 산꼭대기에  
 우뚝 선 우람한 바위인 양하였다. 그러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인연따라 유유자적(悠悠自適)하  
 면서 주지(住持) 직에는 아예 뜻조차 없었으니 이  
 는 대개 원오국사의 고품을 생각한 것이었으리라.

元宗 7년 스님의 나이 41세 때의 여름에 스승이신  
 원오국사의 권유와 조정의 칙령이 내려 경남 김해  
 군의 신어산(神魚山) 감로사(甘露寺) 주지로 부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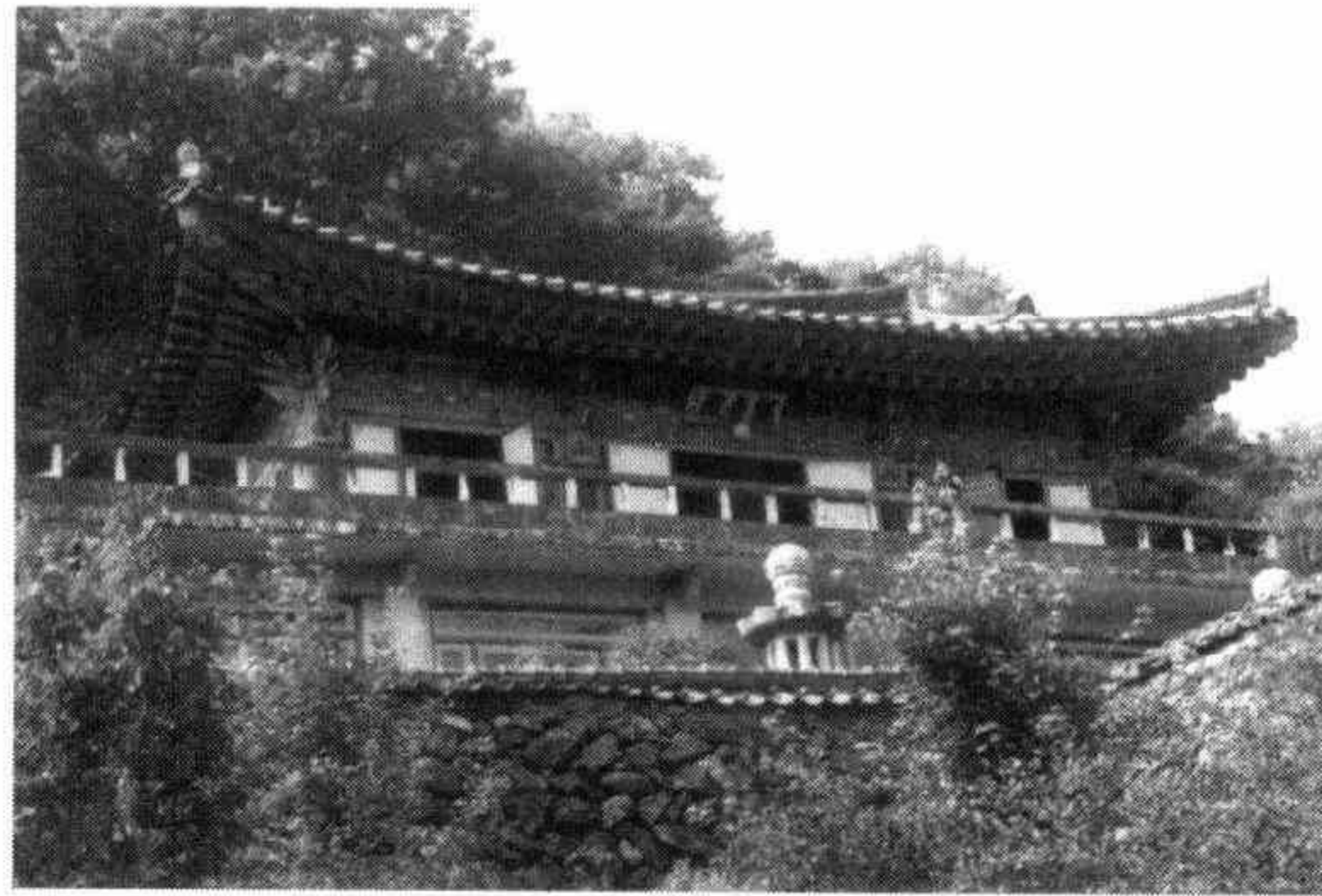
이때에 한 선덕(禪德)의 요청으로 모처럼 붓을 들  
 어 한 수 읊으니

春日花開桂苑中 暗室浮動小林風  
 今朝果熟露甘露 無限人天一味同

봄날 계원 중에 꽃이 피니  
 그윽한 향기 소림풍에 등실 떠 가네  
 오늘 아침 과일 익어 감로 맛이라  
 무한한 인천(人天)에 한 맛으로 같구나

이 시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대부들이 스님  
 을 한번 친견하기를 원하여 줄을 이어 찾아오는 지  
 라 감로사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그 주가가 올라갔다. 또  
 한 스님은 중창불사를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사원의  
 면목을 일신하니 감로사 아래의 동리(洞里)마저 빛  
 을 발하게 되어 스님에 대한 주민들의 칭송이 끊이





▶ 감로암 전경

지 않았다.

스님은 도제양성(徒弟養成)에도 힘을 기울여서 산내의 학승(學僧)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한편 교학(敎學)을 이수한 학승은 실참실구(實參實究)하도록 하니, 총림의 융성함이 유사 이래 으뜸이었다. 원종(元宗) 10년 5월 나라에서 스님에게 삼중대사(三重大師)의 예를 올리며, 원종(元宗) 13년 3월 스님이 47세 되던 해에 나라에서는 전남 승주군 서면 정혜사(定慧社)로 이주케 하였다. 이때 동범에게 보이기를,

鷄足峯前古道場 今來山翠別生光  
廣長自有清溪舌 何必喃喃更舉揚

계족봉 앞 옛 도량에  
이제 오니 산은 푸르러 빛이 나네  
부처님 설법은 시냇물이 설과하거니  
어찌 중얼 중얼 다시 드날리리

스님이 정혜사에 첫발을 내딛을 적에 스승이신 원오국사께서 동행이 되어 주었으므로 스님으로서 큰 기쁨과 영광이 넘쳐 흘렀다. 이에 스승에게 시로써 감사를 표하여 올렸으니,

樓閣重重古梵宮 溪山形勝甲寶中  
我來繼席誠非分 恐添當年國老風

누각이 겹겹인 옛 범궁은  
시내와 산 모습 나라에서 으뜸이라  
제가 와서 범석 이음은 분에 넘치나니  
당년의 스승님께 누가 될까 두렵네

元宗 14년(1274)에 고려의 장수 김방경(金方慶)과 원나라 장수 혼도(忻都)가 군사를 이끌고 탐라를

평정하였는데, 원나라 조정에서 탐라(제주도)에 달노화적(達魯花赤)과 관구병량사좌(管句兵糧使佐)를 설치하고 병량을 준비하면서 조계산 수선사에 속해 있는 토지를 빼앗아 갔다. 이에 스님이 원나라의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몰수해 간 토지를 환수해 주기를 청하니 상소의 일절을 소개하면,

惟此修禪精舍는 創從普照聖師하니 是小邦選佛之場이라 禪流不減於數千指라...

오직 이 수선정사는 보조성사께서 창건하셨으니 이는 우리 나라의 선불장이라 참선하는 무리가 수천 명에서 덜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상소를 본 원나라 조정에서는 스님의 도덕과 문장을 높이 평가함과 아울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원나라에 초청하니 원종왕의 대를 이은 충렬왕(忠烈王)은 이를 승락하고 스님에게 칙서(勅書)를 내렸다. 스님은 처음 출가할 적에 다시는 개경(開京)의 땅을 밟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한 바 있었으므로 여러모로 극구 사양하였지만 어명이 지엄한지라 할 수 없이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던 중 스님이 충청도 웅천에 이르러 가벼운 병을 얻으니 스님은 이를 빌미로 주상에게 상소를 올리고 행선지를 바꾸어 청주로 향하였다.

청주에는 옛날 벗인 청주목백(淸州牧伯) 상서(尙書) 농서공(隴西公) 이오(李敖)가 있어 스님을 반갑게 영접하여 청주 관내의 화정사(華井寺)를 깨끗이 치우고 스님이 주석(主席)하기를 강권하는 것이었다. 스님과 농서공은 원래 세속 시절부터 평생을 두고 사귄 지기지우(知己知友)였다. 그래서 그의 청을 사양하지 않고 화정사에서 한 철을 지낸 것이었다.

스님이 청주 화정사에서 여름을 난 것은 50세 때의 일로 해제 후 곧 바로 나라의 부름이 있었다. 이를 사양할 수 없었던 스님은 내키지 않는 여행길에 기어코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달포를 신고(辛苦)한 끝에 원나라 서울에 다다르니 원의 세조(世祖)가 친히 마중을 나와 궁중으로 영접하여 극진한 손님의 예로 대하고 스승에 대한 예(禮)로써 존경을 다하며 온 나라가 스님의 덕을 우러르고 만민이 그 어지심에 귀의하였다.

스님이 귀국함에 즈음하여 세조는 금난가사(金襴袈裟)·벽수장삼(碧繡長衫)·불자(拂子) 등을 내려 스님의 덕을 기렸다. 이에 주상께서는 관기(官記) 강용(康用)을 시켜 스님을 모시고 산에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정혜사 주지직을 사퇴하고 지리산(智異山) 상무주암(上無住庵)으로 옮겨 가서 조용히 선정을 닦았다. 정혜사의 사주(社主)로 재직한 13년 동안은 절 일에 주력하느라 자신의 공부에 등한히 했음을 절감한 스님은 상무주암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참선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상무주암의 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였다. 충렬왕 12년 2월에 스승 원오국사께서 입적(入寂)하신 것이다.

수선사 대중은 스님을 사주(社主)로 추거(推舉)하고 주상에게 천거(薦舉)하니 주상은 원외시랑(員外侍郎) 김호담(金浩淡)으로 하여금 스님을 청하여 수선사에 입원(入院)하게 하니, 스님은 4월 16일에 조계산에 입원하여 개당(開堂)하니 이로부터 수선사의 제 6세(第六世) 법주(法主)가 되었다.

충렬왕(忠烈王) 17년 초여름에는 난을 피하여 고흥군 불대사(佛臺寺)로 옮겨 앉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충렬왕(忠烈王) 18년 8월 초순에 수선사에서 가벼운 병의 조짐을 보이시더니, 이듬해 정월 7일에 더욱 위중하더니 초열흘 새벽에 삭발하시고 목욕을 마친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이었다. 이에 문도들이 깜짝 놀라 방장실에 모이니 스님은

오히려 태연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

충렬왕(忠烈王) 4년 11월, 마침 스승이신 원오국사께서 강화도(江華島) 선원사(禪源寺)에서 수선(修繕)을 마친 거란본 장경(契丹本藏經)을 조계산 수선사로 이운(移運)한 것을 대중을 거느리고 멀리 도중에까지 마중을 가서 함께 나누어지고 수선사로 돌아왔는데 이를 기념하여 스님은 시계(詩偈)를 읊기도 하였다.

“생사가 있는 것은 인간세상의 예사 일이라, 내 마땅히 갈 것이니 너희들은 잘 머물러라.”

미시(未時)에 이르러 시자 심선(心璇)에게 명하여 분향(焚香)하고 축원(祝願)을 마치고 가사를 수하신 후 소선상에 걸터앉아서 불자를 들어 대중에 이르시되,

“설함에 본래 설함이 없느니라.”  
이 짧은 한 말씀은 하시고는 입을 다무시는지라 여러 스님들이 굳이 임종계(臨終偈)를 청하니 스님은 무겁게 입을 열어.

閱過行年六十八 及到金朝萬事畢  
故鄉歸路坦然平 路頭分明未會失  
手中纔有一枝筑 且喜途中脚不倦

지나 온 세상에 먹은 나이 육십팔이라  
오늘 아침에 이르러 모든 일 마쳤네  
고향에 돌아가는 길 평탄하여서  
그 길이 분명하여 잃지 않았네

수중엔 겨우 지팡이 하나지만  
기쁘구나 가는 중에 다리는 안 아프리.

이때 명망 높은 한 장로가 나와 여쭙기를,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다 하시니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이 답하시되,  
“착안(着眼)하여 보아라.”

장로가 다시 여쭙기를,  
“착안하여 보란 말씀은 무엇을 이르신 것이기에 오고 가지 아니하여 갈 때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까?”



▲ 원감국사 부도탑

지나 온 세상에 먹은 나이 육십팔이라  
 오늘 아침에 이르러 모든 일 마쳤네  
 고향에 돌아가는 길 평탄하여서  
 그 길이 분명하여 잃지 않았네  
 수중엔 겨우 지팡이 하나지만  
 기쁘구나 가는 중에 다리는 안 아프리.

.....

까?”

“알면 되었느니라, 알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입멸(入滅)하시니 세수(世壽)는 68이요, 법랍은 39하(夏)였다. 그 달 20일에 다비(荼毘)를 모셨는데 오색영롱한 서기(瑞氣)가 하늘에 뻗치기를 여러 날을 하였다.

주상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시며 문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내리시고 아울러 칙서를 내리시어 시호를 원감국사(圓鑑國師), 탑액을 보명(寶明)이라 내리셨으며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탑을 세웠다.

스님은 금문(金文) 보장(寶藏)을 모두 가슴에 간직해 두시고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으며 유가(儒家)의 시(詩)와 문(文)과 사(詞)에 남달리 조예가 깊으셔서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붓을 들면 시계(詩偈)와 문장이 저절로 이뤄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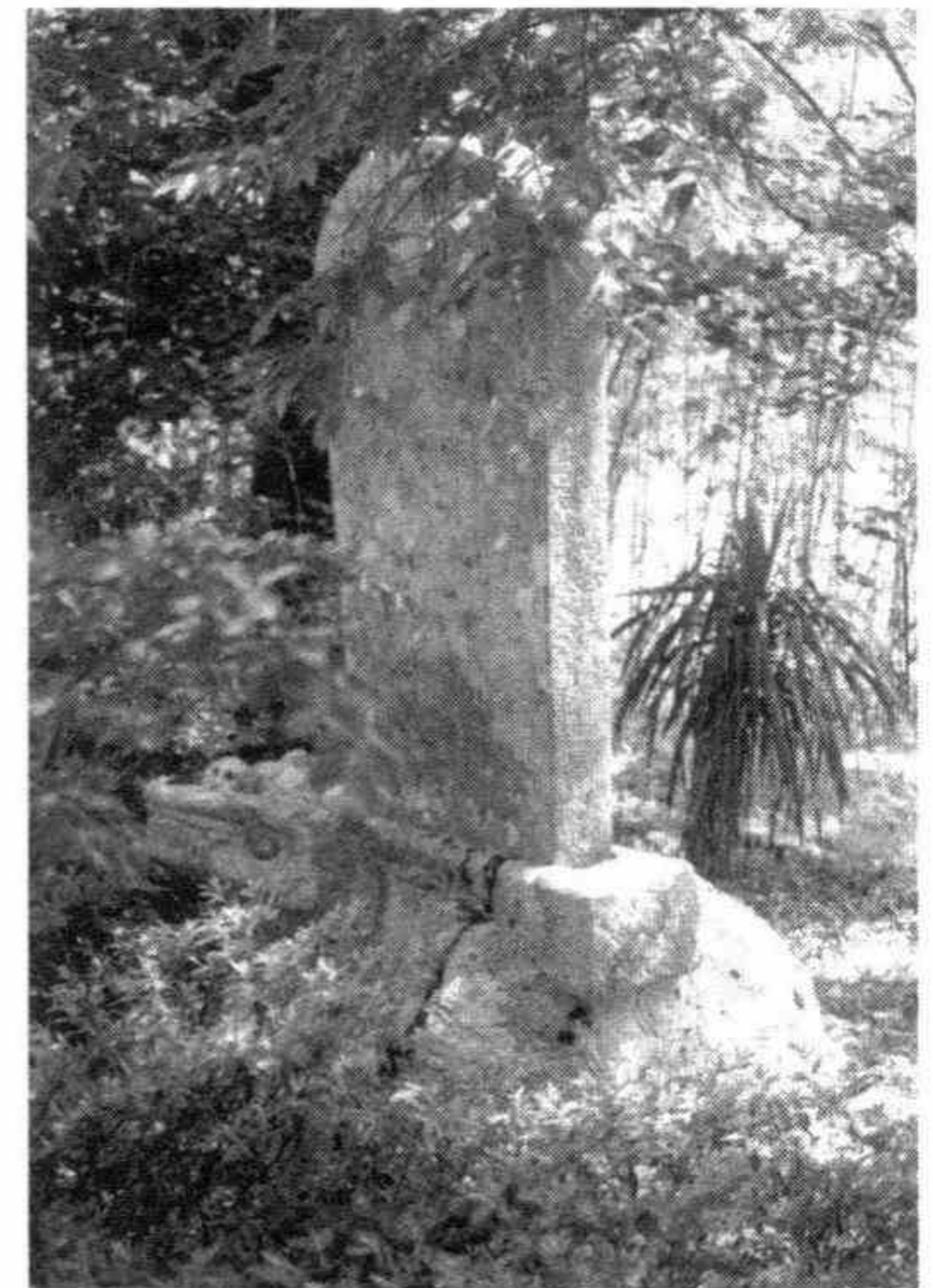
또 스님은 평생 동안 상주물(常住物)을 아끼시어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며 또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 조금도 꾸밈이 없고 물리치시는 일이 없었다.

문인 등이 스님의 행장(行狀)을 갖추어 비(碑)를 세우기를 청하니, 주상은 곧 문한학사(文翰學士) 승지(承旨) 김훈(金暉)을 시켜 비명을 짓게 하였고, 멸후 21년 곧 충숙왕 원년 8월에 수선사의 감로암 앞에 비를 세웠다.

스님의 고향인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에는 외(魏)씨가 대를 이어 많이 사는데 이 고을의 주봉을 장원봉(壯元峯)이라 하는데 이는 스님과 스님의 아우 문개가 장원급제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구룡리(九龍里)에 있는 병풍바위는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는데 그 벼랑에 스님의 초상이 부조(浮彫)되어 전해 오는데 근래에는 풍우에 많이 마멸되어 희미해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형상이라 하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원감집 1권과 원감국사 어록 1권이 유통되었으나 현재는 자취를 감추어 나타난 바가 없고, 다만 1920년 봄 송광사 주지 설월노의 간행본에 첨간된 원감국사집이 있다. 이는 동문선 가운데서 원감국사의 문(文)·소(疏)·표(表) 등을 모은 것이다.



▲ 원감국사 부도탑비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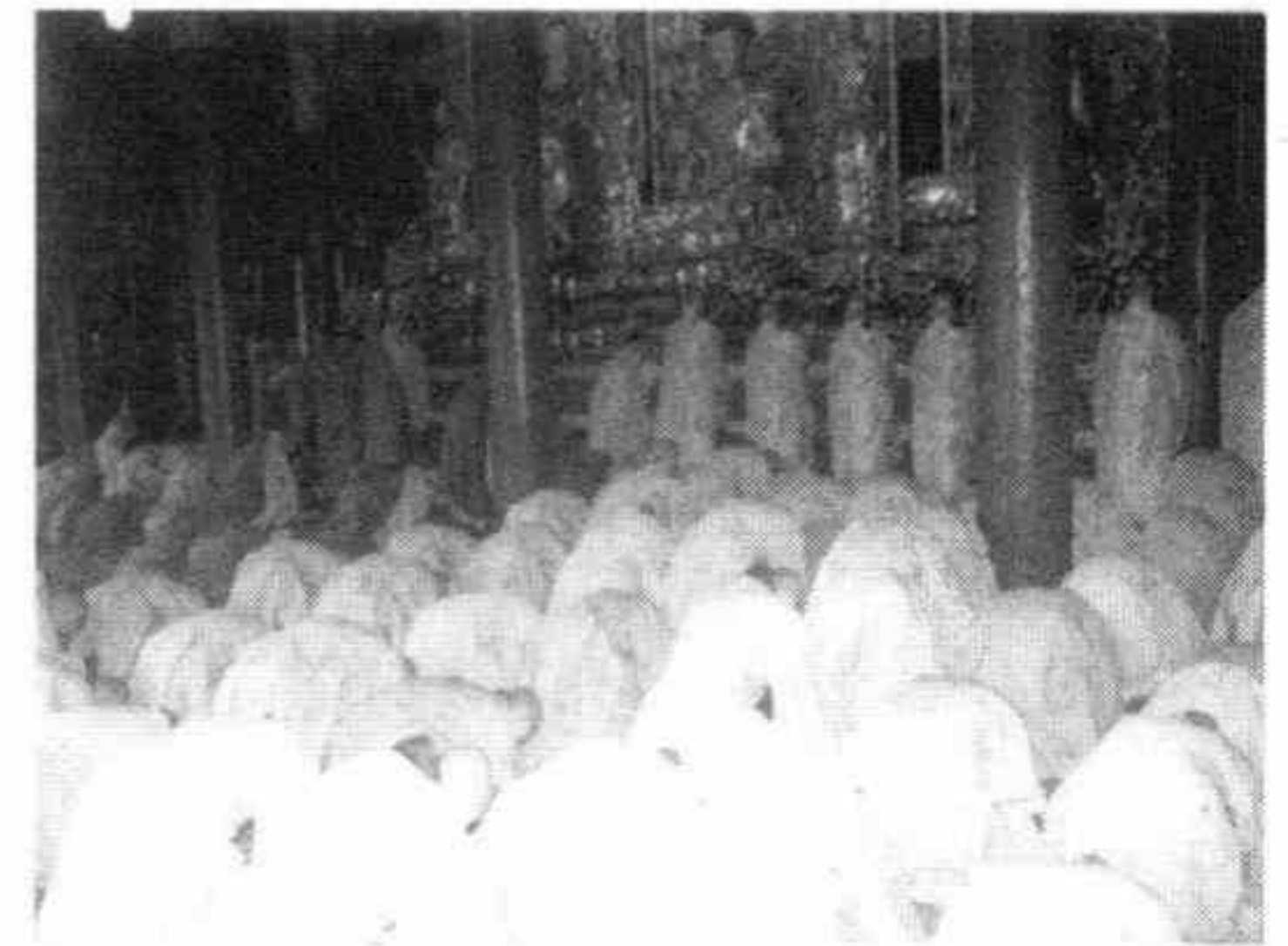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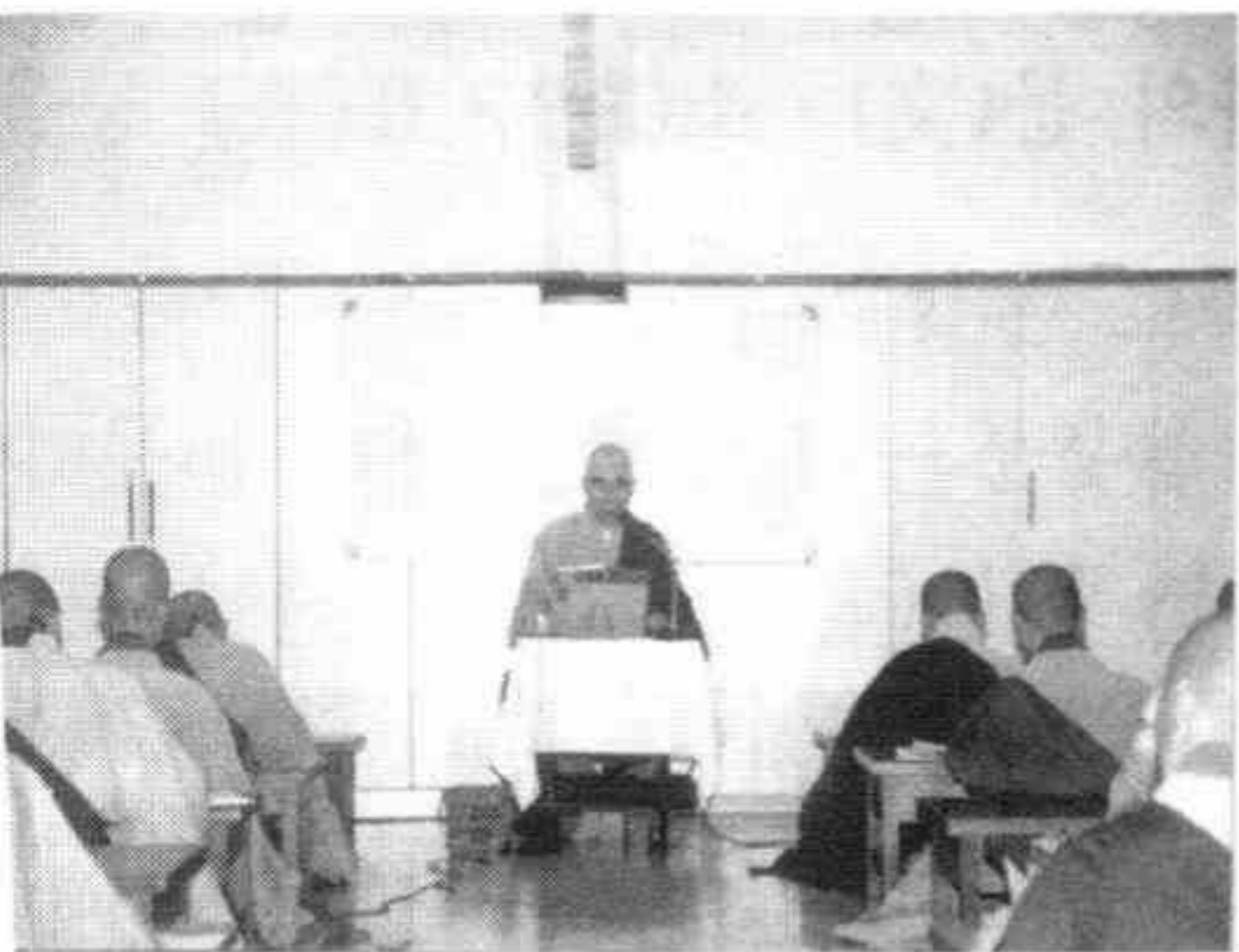
2월 6일 제12회 강원 졸업식  
(기철, 도빈, 도담, 보각, 화진, 혜등, 연광)



3월19일~20일 제781회 보조국사종재  
및 보살계수계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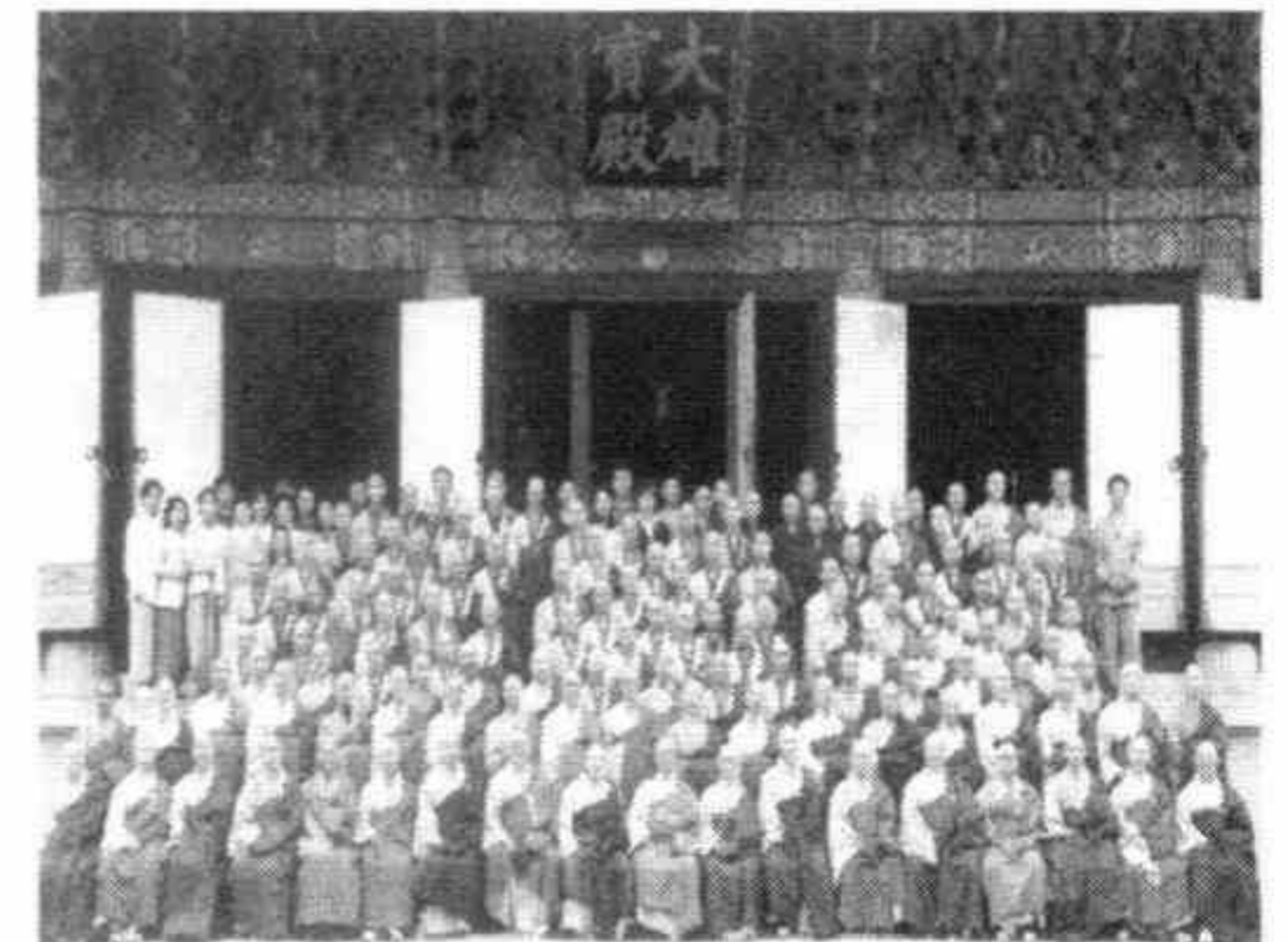
4월1일~9일 제21회 구족계 산림



4월2일~9일 각화사 고우스님의  
선요(禪要) 특강



4월 21일 봄산철 원족산행(내소사)



5월 8일 신사년 하안거 결제



5월 11일 감자밭 울력



5월 13일 5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  
보조국사 학술세미나



4월 18일 보조국사선정기념 사생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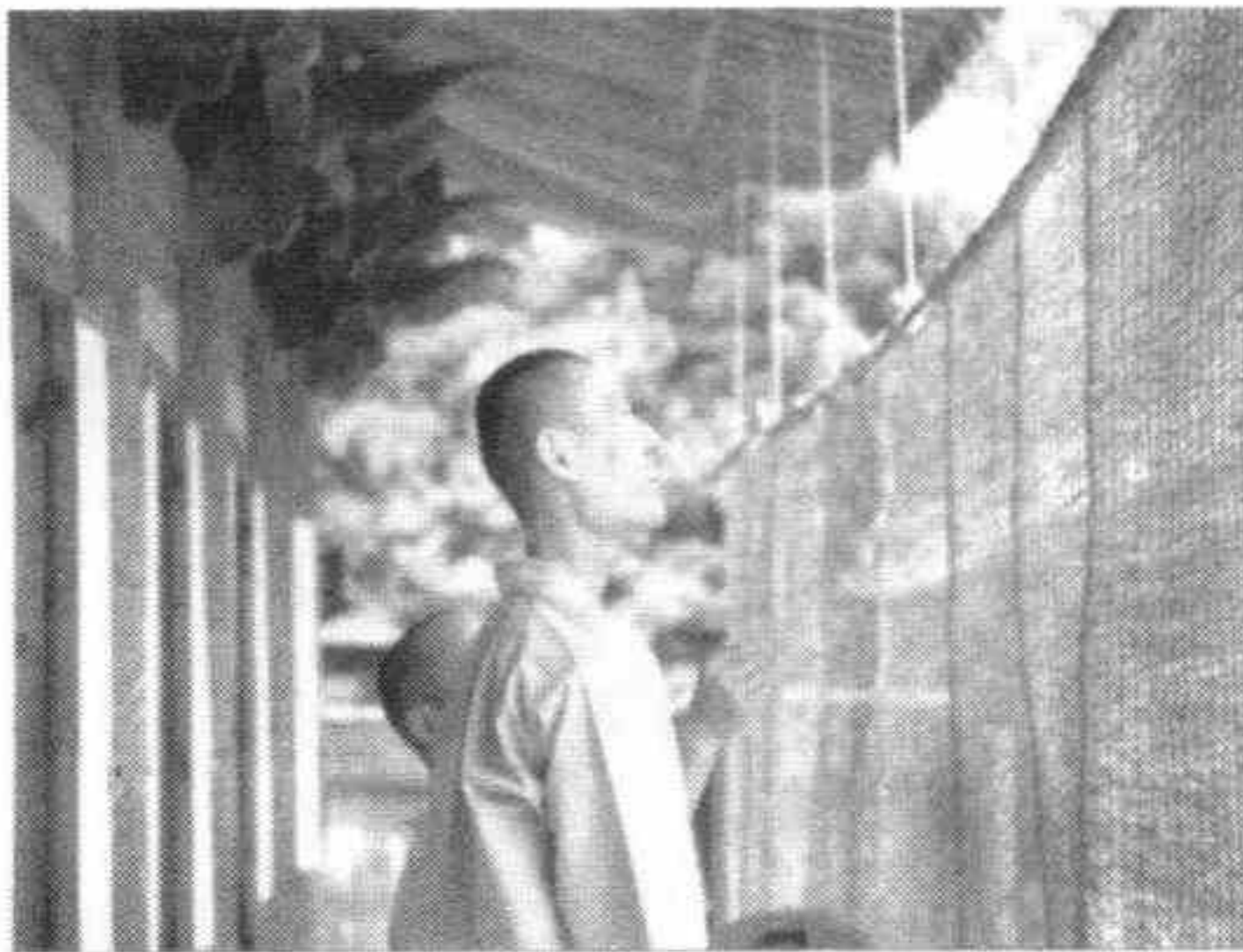
5월20,27,30일 보조국사수행도량참배  
(상무주암, 상백운암, 규봉암)



6월8일~11일 비내림을 위한 특별기도



6월 6일 해청당 종불사 회향 및 타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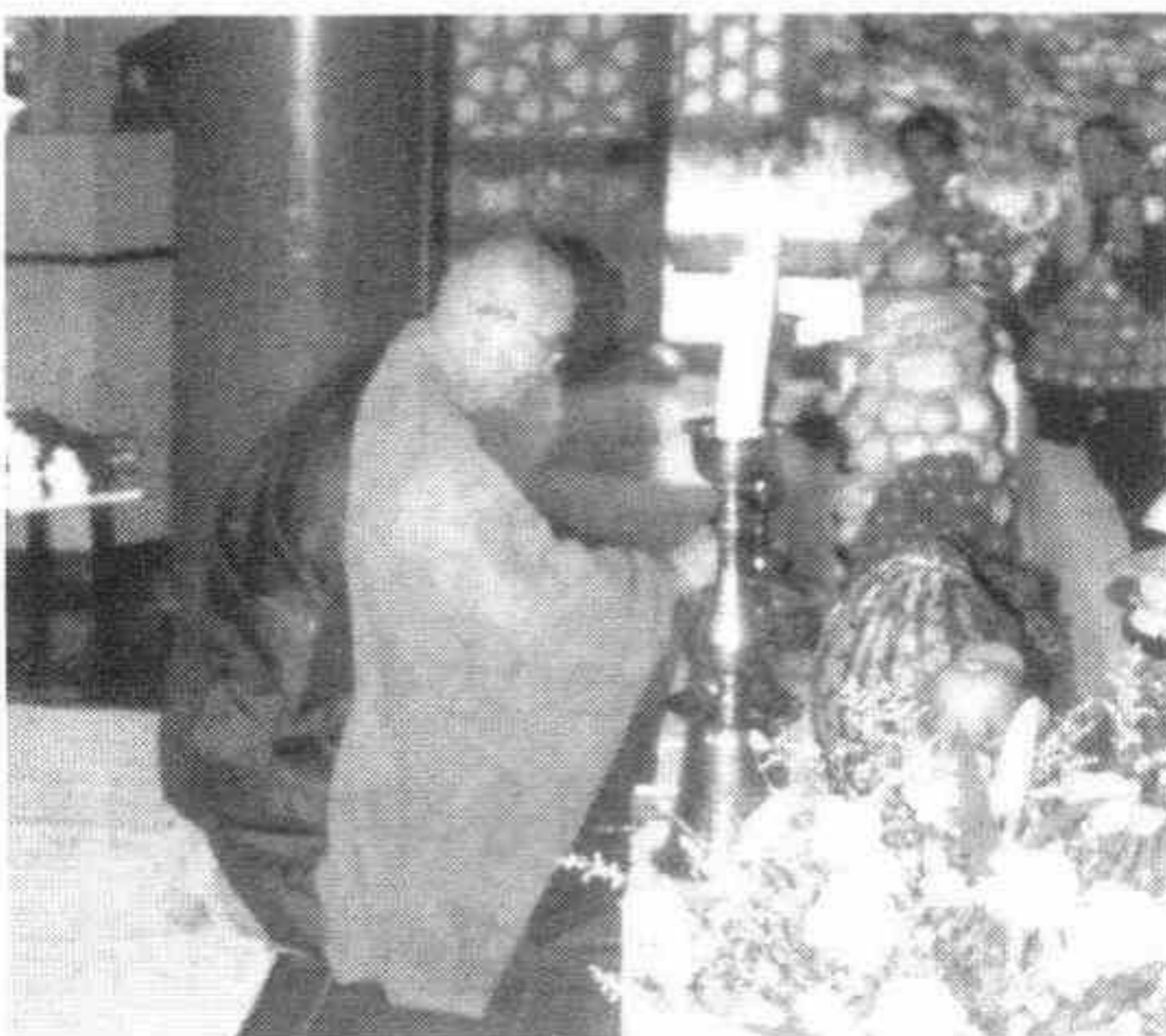
6월 14일 발치기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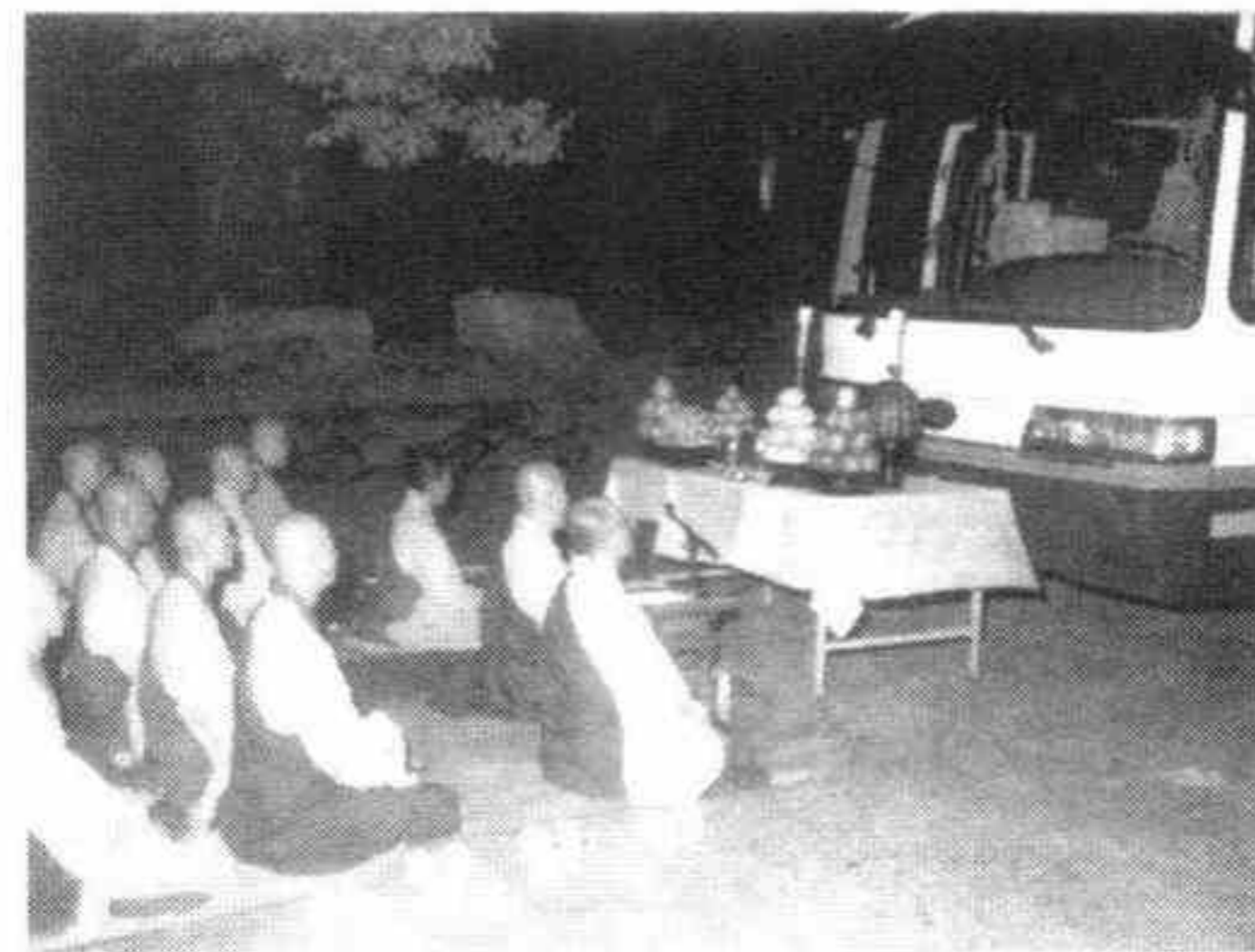
6월 21일 반결재산행(선암사)



6월25일~27일 직지사박물관장 홍선스님  
불교문화특강(사원건축, 불탑, 부도)



6월 28일 조계총림방장 회광당  
일각대종사 5주기 추모법회



7월 3일 안전운행 발원 및 시승식



7월 4일 전강련 학술토론회(동화사)



- 졸업식과 함께 시작된 한 달간의 동안거 방학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그 중 특이할 만한 일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5월의 문화인물 선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제 781주기 보조국사종재 및 보살계수계산림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학술세미나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수행도량참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 90년만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비내림을 위한 특별기도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회향하는 날, 하늘에서는 시원스레 비가 내렸습니다.
- 해청당의 공양종을 새로 조성하고 옛 것은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또, 총림 대중들의 발이 돼주었던 대형 버스가 오래되어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것도 박물관에 보내야 하나?

## 막걸리 스님

도현(道現) / 사교

송광사 강원에 방부들인 첫 번째 여름 안거 반결제 산행 때의 일이다.

꼭 짜여진 틀 속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모처럼 산행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도반들과 떼지어 천자암까지 경주를 했다. 1등은 29분. 그 뒤를 따르던 선두 그룹은 대략 35분대에 도착했고, 내가 끼어있던 중간그룹은 43분경, 그리고 세월아 네월아 느긋한 걸음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 어른스님은 안 계시고, 수계 도반인 천자암의 원주 스님이 우리들을 위해 잘 익은 솔잎차를 내주었다. 발효된 탓에 톡 쏘는 맛도 있고, 생솔잎을 설탕에 담갔으니 당연히 달달할 수밖에…….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온몸에 핏기가 돌았다.

그런 내 모습을 한 스님이 유심히 보았나보다. 선암사 넘어가는 보리밥집에서 잠시 쉬어갈 때, 먼 산을 바라보는 나에게 다가와서는 장난스럽게

“왜, 한 잔 생각나? 코도 빨간 게 밖에서 막걸리 꽤나 마셨겠는데…….” 하며 놀린다.

작은 키에 가무잡잡한 피부, 거기에 평소에도 취한 듯 말꼬리가 흐려지는 버릇 때문이었을까? 그 날 이후 내 별명은 막걸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수업시간,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공부하는 스님이 쪽지를 한 장 건네준다. 거기엔 한자로 ‘莫乞利’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사로이) 이로움을 구걸하지 말라.’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동안 외모를 가지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던 별명이 하나의 생활철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다.

그 날 이후, 낯선 자리에서 나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莫乞利’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감로탑을 물들이던 영산홍 붉은 빛도 사라지고 불두화 하얗게 피어나는 오월, 산색은 날로 짙어지고 있었다.

대승사 학생법회가 있는 날이어서 밤새 준비한 법문 내용들을 떠올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휘적휘적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매표소 지나 저 만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했고,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늘 곁에 계셨다. 전에도 가끔씩 그 분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멀리 떨어져 길의 반대쪽으로 서둘러 지나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날은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올라오고 있어 할 수 없이 그 분들 앞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적선(積善)합쇼.”

‘아직도 저런 말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네.’

재미있다는 듯 ‘적선합쇼’ 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적선(積善)이라면 말 그대로 ‘선을 쌓는다’는 이야기이다. 누구를 위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인과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법. 내가 오늘 실천했던 조그만 선업이나 악업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매일같이 떠드는 이야기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착한 일들을 했었던가?

계속되는 생각의 꼬리는 순천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졌고, 작은 실천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내가 아이들 앞에서 불법(佛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아이들 앞에만 서면 왜 그리도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만한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좀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쨌든 준비한 법문을 무사히 마치고,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발하는 저녁 노을을 배경 삼아 송광사로 돌아오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까지 거기에 계셨다.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서둘러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 드렸다. 걸으면서 나던 짤랑거리는 소리도 없어졌고,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도 줄어서인지 한결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래, 사사로이 이로움을 구걸하지 않는 莫乞利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법회를 다녀오던 날, 행자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하동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시간을 10여 분 남겨놓았을까? 여기저기 피와 얼룩으로 더러워진 옷을 걸친 분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말했다.

“스님! 배가 고파서 그러니, 천 원만 도와주십시오.”

입에서는 심하게 술 냄새가 났고, ‘과연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도무지 이 분은 갈 생각을 않고, 어느새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백 번 말로 하는 것 보다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커다란 교육적 효과가 있을 텐데…….’

어쩔 줄 몰라하는 내 얼굴은 어느새 빨갛게 달아올랐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지갑에서 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으련만 더욱 의기양양해진 이 분은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천 원만 도와주십시오.’를 외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피하고, 만약 때맞춰 역무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 분이 역 밖으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개찰구를 빠져 나와서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 했다.

어차피 주어야 할 것이라면 말없이 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물질적인 도움 보다는 정신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진정한 교화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날의 나의 행동은 마치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고민하는 사람처럼 비쳐졌으니…….

잠들기 전, 남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는 도반스님께 가만히 물어보았다.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와줘야지. 찾아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스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그리고 보니 난 아직도 무주상 보시를 해본 적이 없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비로움.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없었다.

이 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쥐도 좋고, 저 분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주면 안되고……. 대부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고, 어쩌다 작은 정성을 보인 날이면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자랑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가득했던 것이다.

이제는 길에서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두말 않고 도와드릴 것이다. 나의 수행이 무르익어 그 분들을 정신적으로 교화할 때까지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나 보다. 아! 진정한 莫乞利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라.

## 내 마음 속의 시소

효산(曉山) / 사집

어린 시절. 골목으로 이어진 동네에 놀이터 하나 있었으면 했다.

미끄럼틀과 그네, 그리고 시소.

큰 은행나무의 그늘 아래, 모두 모여 재잘재잘 놀아 보았으면 했다. 커서는 그 놀이터가 마음 한복판에 있었으면 했다. 눈부신 햇살에서부터 푸드득 날아오르는 새들까지 자유로웠으면 했다.

그리고 삭발 염의한 후로는 나 혼자 포

행 중이었으면 했다. 빈 그네를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원(願)도 세워보고 싶었고, 온 몸으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의 속도감에서 ‘용맹심’의 세 글자를 읽어 보았으면 했다.

그러나 오늘, 시소에 나 혼자 앉아 있다. 한쪽으로 몹시 기울어져 땅 밑으로 쳐 박힌 채, 내 무게에 짓눌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저녁 일이다. 그 스님은 속가에서 손가락에 마디가 들 정도로 일에는 년덜 머리가 난 분인데, 내가 그 굳은 살을 뚫고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어디 일 잘하시는 스님 없나?'라는 반장스님의 말에 멧도 모르고 "○○스님요" 했던 것이다.

'벌컥' 너무 힘을 쥐 내려간 시소가 땅에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 아침까지 그치지 않았다. 강의시간에 깔고 앉을 방식을 서너 개 들고 오는 스님의 손에서 내가 앉을 방식 한 장을 빼려고 하자 힘을 꼭 주는 것이었다.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기도 한지라, 난 허공에 떠서 내려오지 않는 시소처럼 안절부절해졌다.

'관계'란 그랬다. 마치 시소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의 무게로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이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서로 양보할 줄 몰랐을 때, 시소는 놀이가 아니라 '폭력'과 '증오'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난 시소에 앉아 있다. 한쪽으로 몹시 기울어져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상대편 스님의 얼굴을 찬찬히 본다. 나는 몰랐다. 그 스님의 마음 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추의 무게를...

그 스님도 떼어 내고 싶었지만 떼어 내지지 않는 추의 무게를...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하마터면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으로 빠져버릴 뻔했다. 풀 뽑기 울력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레 말을 건네 보았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허허, 그래요."

그리고 산을 보았다. 나무 가지가 얇은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겨울에는 미세한 가지 끝마다 새털 같은 눈송이를 받

아내더니, 여름엔 온 몸으로 일제히 모든 잎들을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언제라도 깨어있으라는 듯이...

그러나 나는 얼빠진 장승처럼 굳어 있었다. 나 자신만의 수호(守護), 나 자신만의 도량(道場) 속에서 이기심의 비질만을 하고 있었다. 그 비질에 빠져나간 찌리 하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더러움을 마을 입구의 담벼락에 붙여 놓은 꼴이 되었다.

나의 꿈은 그랬다. 마음 한복판, 놀이터에서 그네와 시소까지 서로 즐거웠으면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 혼자 시소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반대편에 홀로 앉아있는 다른 스님의 반짝이는 두 눈을 보지 못했다.

오늘이 다 가기 전 그 스님께 사과를 해야겠다. 다시 서로 피식 웃게 된다면, 시소는 왔다 갔다 한 개의 시소에 두 세상이 어울려 신나는 놀이가 될 것이다.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 찬 머릿 속에 서로 서로 조심스레 기울어진 한쪽을 끌어내려 준다면, 어느 날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너무나도 작은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어설픈 말 한마디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시소에 갇혀 지내게 하거나, 너도 나도 모두 들어와 한번 쯤 타보고 싶어하는 신나는 놀이터가 되게 할 것이다.

## 박복자(薄福者)

홍전(弘田) / 치문

“박복한 놈!”

처음 스님을 뵈었을 때 들은 소리다. 내가 어지간히 복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속 생활에서 숨 한번 돌릴 여유를 찾고자 할 때, 학교 선배가 ‘힘들면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곳에 잠깐 가서 쉬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해 주었다. 솔직히 내겐 싫을 이유가 없었다. 바로 가겠다고 대답하고, 고향집에 내려가 며칠 쉬면서 모든 걸 정리한 후 절에 들어갔다. 물론 출가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출가 인연은 시작되었다.

나도 처음엔 몰랐지만 절에서 살다 보니 내가 정말 박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들어간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절에 과일이 딱 떨어졌다. 근 한 달 정도 그랬던가보다. 항상 과일은 끊이지 않게 들어왔다던 절이었는데..... 이때부터 나의 박복은 시작되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온 목적은 몸과 마음을 쉬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해가 돋자마자 나의 일은 시작되었고 끝나는 시간은 스님의 재량이었으니 오죽하였겠는가? 스님께서도 일을 시

켜보시더니 한숨만 쉬셨다. 그럴 만한 것이 일머리도 없을 뿐더러 덩치도 작고 일도 서투르고 하는 일마다 킁킁대니 나중에는 ‘꽁꽁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셨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그 중의 하나가 이마의 주름이었다. 이 주름 때문에 20대 초반에 벌써 30대를 넘겼고 30대를 가까이 할 즈음엔 벌써 40대에 이르고 있었으니 가히 어느 정도 인지를 아시리라. 3개월 정도를 숨돌릴 틈 없이 불사(佛事)에 전념하던 중, 아침 공양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이마가 좀 펴지는구나!”

항상 모든 일을 불만족하게 여겼던 습관 때문에 항상 나를 따라 다녔던 주름살도 그렇게 조금씩 펴졌다.

그 이후, 출가의 인연은 있었지만 출가할 만한 복이 없어서인지, 1년을 은사스님 밑에서 지낸 뒤에야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막상 출가를 한 후, 행자실에 가 보니 상(上)행자가 두 명 있었다. 그 밑에서 말번(末番)행자로 3개월을 살았다. 그리고 두 상행자가 사미계를 받고 스님이 되자, 나는 곧 행자반장이 되었다. 그러나 단 한 명뿐인 행자실의 ‘나홀로’ 행자반장이었다. 그렇게 나홀로 6개월을 지내고 계를 받았으니 역시 박복이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출가하여 스님이 된 내 모습을 보면 가끔은 그 '복(福)'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많다. 특히 공양시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거나 수행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히 앉아 공양한다는 자체가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 보시한 단월들에게 정말 죄스러울 때가 많다.

3代가 보시를 해야 스님 한 분이 나오고, 스님 한 분이 나오면 9代가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복이 있어야 스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받은 복만큼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갚아야 할 과보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난 아직 박복하다. 그러나 이 박복함이 더 좋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수행할 수 있는 밑천이기 때문이다.



## 삼전사기

(출가에 얽힌 이야기)

지명(智明) / 치문

저는 송광사에 네 번이나 출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3월 조계산 호랑이가 되겠다며 두 손 불끈 쥐고 송광사를 첫 번째로 찾았습니다.

원주스님께 말씀드리니 시자실에 좌복을 깔고 마냥 앉아 있으라더군요.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팠지만은 종일토록 벽만 쳐다보고 있노라니 한적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후원에서 들려오는 행자님들 소리말고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차츰차츰 처음 먹었던 마음은 약해지고 '과연 내가 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중 원주스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출가동기에 '올바른 중이 되겠다'라고

적었는데 그걸 보시고 '무엇이 올바른 중인가?' 하고 물으니 앞이 캄캄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세 번의 똑같은 질문에 결국 대답을 못하고 다시 벽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올바른 스님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자' 이런 뜻을 원주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 말씀이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출가했다'라고 하시더군요. 듣는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하였습니다. 곧바로 환하게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날 오후부터 삼 일 동안 만 배를 시키더군요. 비록 첫 날에 삼천 배를 마쳤지만 약해지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

나 봅니다.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건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나 봅니다. 다음날 새벽예불을 보던 중간에 법당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혼미한 정신으로 일주문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스스로 지켜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출가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정말 부끄럽더군요. 다시 한번 더 굳은 마음을 먹고 순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송광사행 버스가 3대나 지나가도록 버스 위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친 사람처럼 순천 시내만을 방황하다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원주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찾아갔더니 스님과 행자님들이 놀라시더군요. 원주스님께 고맙다며, 이제야 앞뒤 순서를 알게 되었다며(이제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며), 마냥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환상에 젖었는데 사람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삼 배를 드리고 다시 일주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참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출가를 위한)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출가에 대한 의지를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될 인연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연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에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꼭 일어나서 수영복과 런닝복을 들고 공설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매일 트랙을 15바퀴씩 돌며 의지를 길러 나갔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숨이 막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박차고 나갔습니

다. 매일 산행을 하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9월이 되자 다시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순천행 버스를 탔으나, 오던 중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송광사에는 도착했으나 법당에서 참배를 마치고 다시 후원으로 향하려니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종고루(일주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다 버리자.’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송광사의 주인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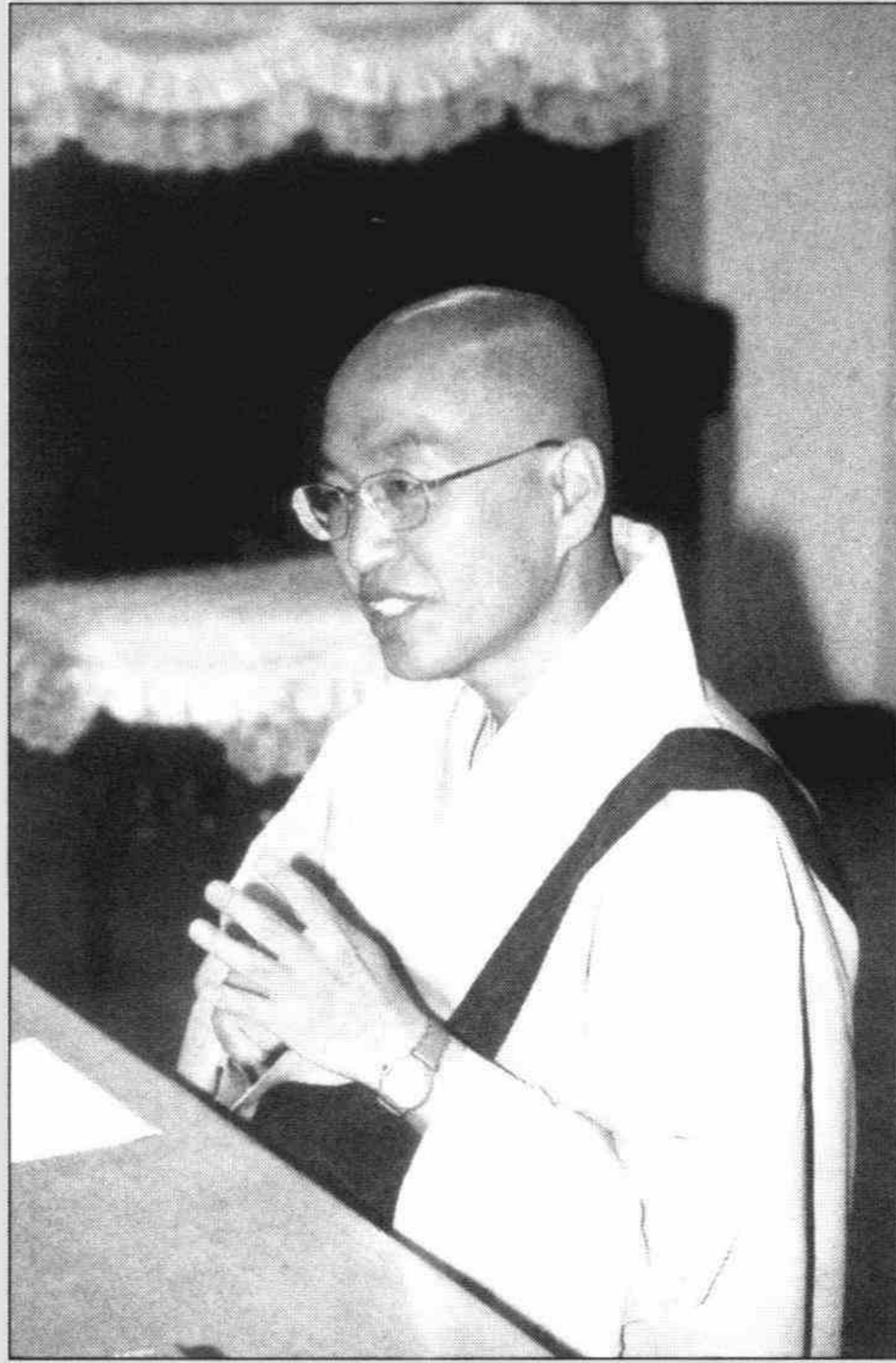
그리고 4일 후 또 다시 송광사로 왔습니다. 4일간 대기하고서 결국 머리를 깎고 행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참회진언을 외우며 많이 울었습니다.

정혜탐방

정토회

## 법륜 스님



또르륵 딱, 또르륵 딱.

후끈 달아오른 도심 한 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의 경쾌함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불교가 대중들의 요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대승불교가 발생했듯이, 불교의 근본 교리체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발길을 머물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불교계 사회활동의 대표주자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만나보았다.

편집부

도심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지 못한 편이에요. 지방에 법회가 끝나면 11시 차 타고 서울에 새벽 5시쯤 도착하나요. 그러면 세수하고 공양하고 7시 약속 있어 나가거나 아니면 눈 좀 붙이고요. 그 다음 9시 약속, 11시 토론회 또는 법회 보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법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사무보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내부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또 1년 중 6개월은 해외에 6개월은 서울에 있는데, 국내 있을 때는 일주일 중 2일 정도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지방에 있어요. 따로 일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식사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생활이에요.

‘승적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용성 스님의 법을 계승한 불심 도문 스님을 뵈게 되었죠. 당시 분황사에서 주지로 계셨는데 뵈면 뵈수록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 2 때 불교 학생회 회장도 맡으면서 절에서 살았는데, 졸업하려니까 이제 나가서 살라 하셔서 나왔죠. 그 후로 20년을 재가법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90년도 말이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몇 번이나 그러시

더군요.

“인제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님, 도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도에는 안팎이 없지.”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지.”

스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팎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밖을 고집하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삭발을 했지요.

그 때 스님께서 사미계는 옛날에 받은 걸로 하고, 계율에 대해서만 다시 설하고 비구계와 법사계를 받고 전법을 받았죠. 그때가 91년 1월이었어요.

내 승적문제에 대해서 스님이 ‘네가 20년 밖에서 나가 살면서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딴 짓 한 것도 아니고 불교 활동했으니까 승적문제는 내가 한 번 의논을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장 수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94년도에 종단사태가 생기고, 같이 참여하자고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어요. 당시 중정이셨던 서암 스님께 찾아갔더니,

“아무리 좋은 일도 여법(如法)해야 된다. 데모 같은 건 불교의 방식이 아니다. 주먹을 흔들고 단식을 한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 어떻게 불교적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동참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종단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스님이 갑자기 사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실 수 있도록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종단의 개혁하시는 스님들이 와서 보니까 비록 사퇴하는 자리지만 거기서 사회를 보고 있으니 혹시 종단사태에 개입되지 않았나하는 오해를 받게 됐죠.

그래서 나를 징계하려고 승적(僧籍)을 찾아보니까 승적이 없어요. 불교신문에 ‘가짜 승려다’라고 대대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총무원에 찾아가서 내가 승적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뭐 가짜 승려 행세를 한 것도 아니고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더니, 호법부에서 스님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쪽 썼어요. 91년에 제 은사스님께 사미계를 받았는데 마침 단일 수계가 없었던 해이고, 스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일수계를 지나쳐 버리고 계를 못 받게 됐다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단일 계단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자교육원 입방원서를 다시 썼어요. 그게 아마 8월 25일부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 6월부터 ‘북한돕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두 달간에 걸쳐 끝내고 8월 15일날 회향하면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대통령과 면담신청의 날짜를 잡아야 했는데 그게 8월 29

일로 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늦게 가면 안되냐 물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모든 행사를 제가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수계받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동포들 놓아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연유로 승적이 없게 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행의 사회에서는 행정절차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수 못했기 때문에 승적이 없는 거니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종단 밖에서라도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모두 불교로 가고, 조계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토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5년도에 중앙 불교교육원이라고 승가대 스님들과 동국대 학생 및 대학원생을 가르쳤던 것이 출발기였다고 할까요. 당시 학생들은 민주화라든지 사회에 대한 변화의식은 있는데 불교사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붓다라는 분이 어떤 인격적 성장을 해 오셨는지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근본 가르침, 근본 교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또한 현재 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며 시작했죠. 그러니까 스님들과 부처님의 일생이라든지 불교의 근본 교설이라든지 불교 변천

사를 공부함과 동시에 현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저희들이 88년에 ‘정토회’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정토삼부경에 묘사된 정토는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모든 유정·무정들이 언제나 수행하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에 힌트를 얻어서 ‘맑은 마음·좋은 벗·깨끗한 땅’으로 표현했는데, ‘맑은 마음’은 개인적인 수행이고 ‘좋은 벗’은 통일운동과 제3세계 복지운동, ‘깨끗한 땅’은 환경운동으로 사업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현재 정토회 내의 단체는 크게 5개가 있거든요. 수행단체가 2개이고 사회사업파트가 3개입니다.

수행파트의 2개 중 하나는 ‘정토행당’인데 여기서는 주로 대중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곳이지요. 두 번째가 ‘정토수련원’인데 법당하고 구별한 이유는 법당이 불교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수련원에서는 너무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짓는 공동체라든지 불교라는 이름을 굳이 쓰지 않고 수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파트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운동인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또 하나가 ‘한국 JTS’인데 세계 인류적 차원에서 기아·질병·문맹 퇴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 마을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고, 북한에 지원하는 일, 몽골에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단법인이지요. 세 번째 사단법인은 ‘좋은 벗들’인데 주로 통일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스님의 백일법문을 듣고 모두들 그 해박함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궁금해 했는데요...

저의 은사스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녁 먹고 6시나 7시쯤 앉았다 하면 이튿날 예불할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 혼자 앉혀 놓고 말씀하셔도 백 명을 앉혀 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고 또박 또박하게 하셨어요. 혼이 들어 있는 듯한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었지요.

또 저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럴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늘 저 자신의 마음에서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피고, 반대로 경전을 읽으면서도 늘 그 경전의 구절에 대한 의문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를 통해서 ‘아 그게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그 속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제 경험은 주로 그런 쪽에 있어요.

예불이나 기도의 집전을 모두 재가자들이 하고 있던데, 천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저는 제사를 문화라고 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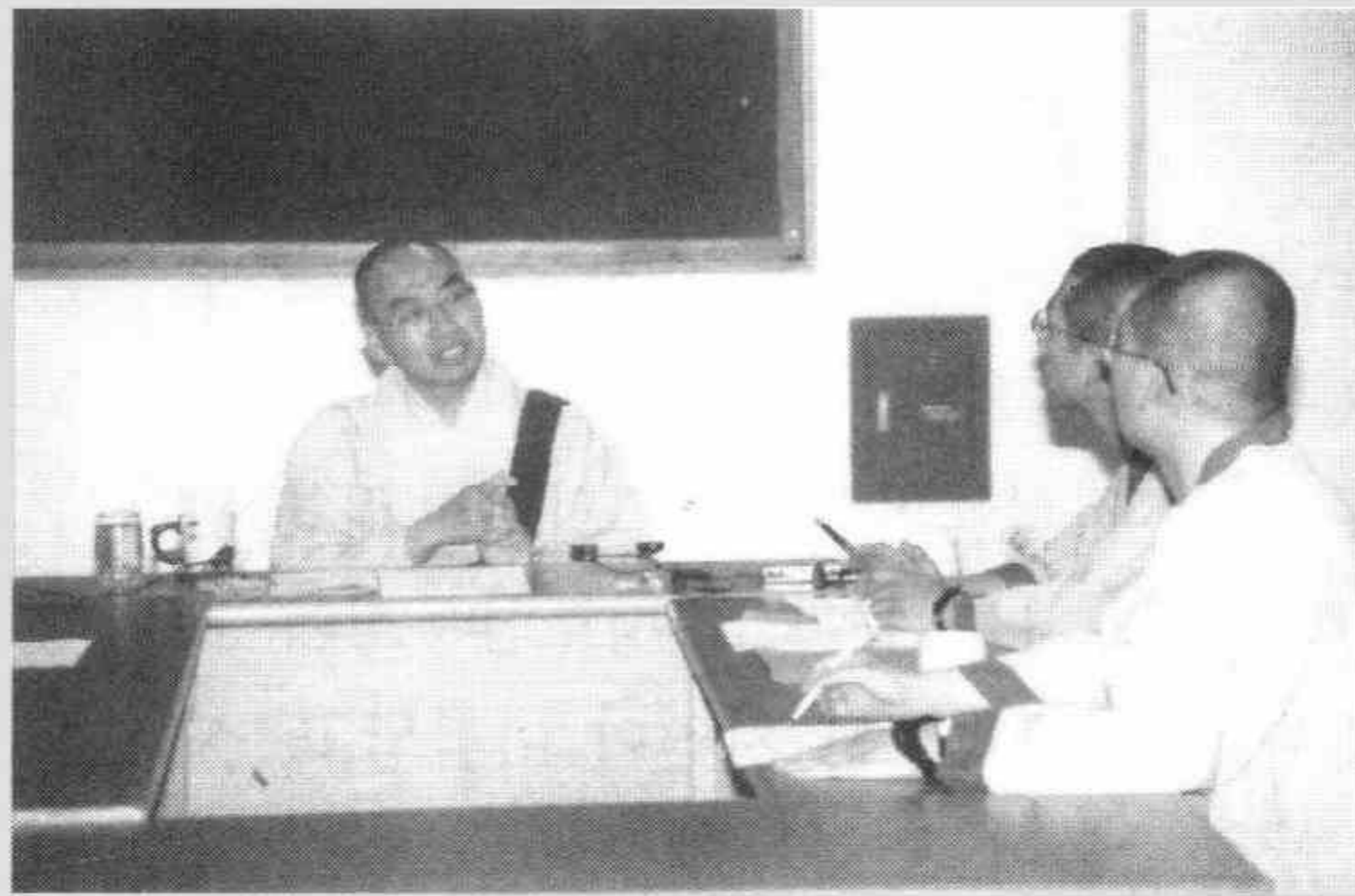
법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마음을 깨치면 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처음에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런데 대중의 현실적 요구, 즉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대중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9재를 바라볼 때, 다름아직 차원의 의미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식이 널리 베풀면 영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아픈 자에게 약을 주는 것이라면, 가장 배고픈 자가 누구냐? 안거를 끝내고 나오는 스님이야말로 가장 배고픈 자니까 거기에 공양을 대접함으로써 영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꾸로 승려가 영가한테 음식을 올리는 것을 주도하고 스님은 제주(祭主)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 승려가 성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려는 사제가 아니라 수행자인데 오늘날 대부분 사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사는 베푸는 것이니까 인도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하여 시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말면 '제(祭)'를 지내는 문화는 있으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에서 수용해 주고 대신 음식은 집에서 가져오자. 제사는 원래 유교방식이니까 자식이 제주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는 제주들이 지내는 것이고, 그러면 스님은 무엇을 해 주느냐, 법문만 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 도심 속의 포교가 사유화·세력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스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그것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서 불교의 어떤 면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노비를 두고 움직이는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찰을 유지하려면 사찰에 소속된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때는 보시를 하면 땅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노비가 농사짓고 절에서 밥짓고,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스님들의 공부 that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난 이것을 뛰어넘은 스님은 원효 스님 정도 외에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신분제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 신분체계를 부정하셨습니다. 신라나 고려는 아무리 사상적으로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비가 기초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스님은 한 때는 노비의 주인이었고, 또 대지주였고, 그렇다면 지금은 사찰이라는 운영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제를 지내는 데도 밥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그 남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새롭게 바뀐 사회에서 볼 때에는 이 시대에 살았던 스님들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없는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사찰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 있으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고, 스님들도 월급 받고 부전을 보고 있잖아요. 또 중책을 맡은 스님들은 수입원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승가 안에 있을 수 없는 빈부격차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찰에 들어오는 돈은 주지와 같은 권한이 있는 스님이어야 돈을 가질 수 있지, 권한이 없으면 노력 봉사로 끝나거나 월급을 받는 노동자만 되지 자신이 사 용주는 되지 못하잖습니까.

이러니까 한 쪽은 주지나 직임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게 되고, 그렇지만 절은 한정되어 있고 스님은 많으니까 나머지 스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세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업체를 가지



려고 하려는 것과 같이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자기 것이라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자기 것이 아니면 괜한 노력봉사일 뿐이잖아요. 바로 이게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에겐 이러한 자본주의 내에서 수행과 병행해 갈 수 있는 자기 존립방식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두 다 자기 것 하나를 갖고 싶다, 자기 절 짓기 좀 미안하니까 토굴 하나 짓는다, 이것이 개인 사찰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는 종단의 체제가 문란하면 문란할수록 그 속의 승려들은 각기 세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장로나 교구라는 견제책이라도 있지만, 승려는 그런 견제도 받지 않고 완전히 개인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업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 교단의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라도 불교가 양적으로 확대하려면 이러한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낫지, 가두어 뒀서 작은 밥그릇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풀어 주는 게 내부로도 갈등이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로 삼는 존경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서암 스님을 존경해요. 미국에서

처음 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분인 줄 몰랐어요. 외국에서 만난 한국 스님이라 한국 불교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이고, 그곳이 절이고, 그게 불교라네.”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비판보다는 대안을, 다툼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분을 우연히 분황사에서 만났어요.

“스님, 저 미국에서 뵈었지요?”

“아, 맞다 그 청년이구나.”

그렇게 두 번 만나고, 85년도에 조그만 10평 짜리 포교당을 열면서, 봉암사에 전화를 했어요.

“스님 저 미국에서 본 아무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어, 알지!”

“제가 조그마한 법당을 개원했는데 스님 사흘만 법문해 주십시오.” 해주시겠다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셨어요. 1층부터 음식점 다방 당구장 4층은 원래 댄스홀인데, 바닥도 돈 안들이고 빨간 바닥 그대로 그냥 두고, 관음상 탕화 사진만 걸어놓고 포교당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오셔서 20명 모아 놓고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사흘을 강의를 하셨어요.

공양은 대각사에서 얻어드시고 또 여기는 잘 방도 없으니까 스님이 알아서 주무신다고 하시며, 저는 어디서 주무시는 줄도 모르고 그

렇게 사흘을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열만 가졌지 예의도 몰랐어요. 그분이 워낙 소탈하셔서 그랬겠지만 내려가셔서 열흘, 한 달을 앓으셨다나... 노장을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2시간 씩이나 법문을 하시게 했으니... 그래서 나중에 봉암사에서 그놈 어떤 놈이냐고 잡아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차표 끊어 드린다고 그러면, 노인은 반액 할인이라고 통일호를 타고 가시고... 이런 데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늘 몸소 실천하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까이서는 아니더라도 때되면 전화로 뵈고 안부도 여쭙지요.

남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것 같은데, 활동하시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기성찰의 욕구를 어떻게 극복 하셨습니까?

제가 활동하면서 ‘아, 잠 한번 실컷 자봤으면, 세끼 밥만 제 시간에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75일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2주일만에 9kg이 불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편했는데 내가 행복했느냐? 청소년 포교한다고 기차 안에서 라면 먹고 또 자면서 온천지를 뛰어 다닌 게 행복했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선 불편함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불법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결혼을 해도 부처님 법을 위해서 가야 할 길에는 변함이 없어요. 머리를 길

포교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그 살핀 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러도 이 길 갈 것이고, 결혼해도  
이 길 갈 것이고 혼자 살아도 이  
길을 갈 것이지, 지금 인생의 길이  
어떤 계기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머리 길러서 살 때도 스님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살았고, 머리  
깎고 나서 오히려 머리 기를 때보다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돼버린  
게 불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소임자로  
서 사찰을 유지하면서 보수하고  
대중들과 마음 맞추고 그런데 내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것 아닙니  
까. 지금은 대중들과 의논해서 결  
정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 측면  
에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고  
민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포교와 수행을 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  
철 스님이 수행만 했다지만 저 보  
다 더 많은 포교를 하셨어요. 마찬  
가지로 제가 포교만 했다지만 이  
런 활동을 하면서 선방에 앉을 때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  
해요. 대중과 어울리고 길거리에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여자가 있  
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 속에  
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수행이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게 따로 있  
겠어요.

요즈음 학인 스님들이 자신의 근기를  
탓하면서 ‘난 포교나 하겠다’라는 말을  
간혹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먼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든다면 스물이나 서른  
이 넘은 남자나 여자가 절에 와서  
살게되면 어떤 욕구도 있을 것이  
고, 수행이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누구나 갖고있는 현실적인 욕망이  
현실화한 것이에요. 그걸 억누른  
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지켜봐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 내면에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지금 막 온 세상이 불만스  
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도  
와 줘야 해요. 이런 것이 스승이예  
요. 어떤 때는 “괜찮다” 하고 위로  
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야! 이  
자식아, 출가한 놈이 그래서야 되  
겠냐” 야단치기도 하고 강주나 중  
강이 해 줄 수 없으면 상급반에서  
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기가 낮다 높다라는 말은 불법  
과는 안 맞아요. ‘근기가 다르다’  
라는 말은 맞아도 ‘근기가 낮다, 높  
다’ 라는 말은 이미 세속화된 것들

이죠. 그건 분별심이에요. 수행은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철 스님하고 구산 스님하고 누  
가 더 도가 높을까’ 이런 말 자체  
가 세속적이잖아요. 그 도(道)는  
순 힘아닙니까.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느냐, 누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느냐, 이런 식의 평가로서는 ‘높  
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놓아 버리는  
거로는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없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화를 하루에 열 번 내던 사람이 절  
에 들어와서 하루에 다섯 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밖  
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은 처음 들어왔는데도 수행이 됐  
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절에 십  
년 있었는데도 수행이 안됐다고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이  
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수행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해야만 해  
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우왕좌왕  
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스님들을  
정성껏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禪定)이 제  
일이다’ 라는 말의 굴레에 있기 때  
문에 선정은 좋은 거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는 관념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참선하면 근기가 있는 중  
이고, 참선을 못하는 중은 근기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자기의 느낌을 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

든요.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절 안에서만 배운 지식이 절에서만 효율이 있지 사회에 나오면 쓸 데가 없어요. 한국 불교는 한국 안에서만 큰소리를 치지 해외 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계적인 불교가 일어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불교적인 내용'을 갖춰야 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첫째가 '인격'인데, 자기 고뇌가 불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자기 성격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인격적으로 수행이 됐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론 정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양한 선상에서 대중의 언어에 의해서 대중의 몸짓으로 표현이 갖추어 질 때, 불교가 사회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옛날에 부처님은 시대를 앞서서 해답을 제시했잖아요.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제시했고, 여성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차별 받는 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이게 자비거든요. 불교의 자비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실천되어질 때 불교가 사회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로가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못 잡으면 적어도 청량제 역할이라도 해야 되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에서 밥 끓여가며 공부하면 '스님들은 저렇게도 사는데...' 하잖아요. 과거를 그대로 갖고만 가도 존경을 받을 건데 그 전통도 허물어 버리고 또 새로운 길도 못 찾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기에 들어서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승려들이 한가지 길만 가서는 안 된다, 선방은 굳이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소박하고 소탈하게 하루 한끼 먹고 도(道)를 얘기하는 그런 청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회 활동하고 연구나 이론이나 실천이나 막 앞서서 하는 그런 쪽도 있어야 하고, 또 한쪽은 청소년 문제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나 또는 그룹을 인격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데, 작은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빌미 삼아 종단에서 쳐 버리니까 오히려 손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스님의 기본은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적인 자세로 점점 확산이 되어야겠지요.

우리들도 조금씩 해나가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불교는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지난 백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봐야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신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권위의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세월이 흐르면 하나씩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고 일단 뜻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한국불교도 세계적인 불교로 발돋움하지 않겠습니까.

회색빛 도심 속에 자리한 정토회관.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1000일 용맹정진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당에서는 재가불자의 정근이 목탁 따라 낭랑하다.  
해우소에는 세찬 물호스가 화장지를 대신하고, 공양간에는 오신채와 조미료 없는 담백한 음식들. '心經'과 함께 하는 아침의 발우공양 후에는 죽비 일타와 함께 공사가 이루어진다.  
정토회관에는 10년이 넘게 출가 아닌 출가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간절하고 절박한 수행자의 모습.  
어느 곳에서나 수행자를 만나는 일은 가슴벅찬 일이다. 송광사로 돌아와 아침예불을 모시는 도반스님을 보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발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근본(根本)

애욕아, 나는 너의 근본을 아노라.  
뜻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생기나니  
만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있을 수 없노라.  
애욕이 있어 번뇌가 생기고  
애욕이 있어 두려움도 생기나니  
애욕을 버려 자유로우면  
두려움과 번민은 사라지리라.  
처음에는 달다가 뒤에는 쓰디쓴 과일처럼  
애욕 또한 그와 같아서  
뒷날 지옥 고통을 받을 때에는  
한 없는 세월 동안 불에 타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탐욕의 포로가 되어  
피안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재물 쌓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하니  
남들을 해치면서 자기 또한 스스로 얽어매누나.

법집 요송경 제1; 애욕품; <4-778상>



## 차와 휴식

성경(性鏡) / 사교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세속의 욕구를 끊고 출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은 외형적 모습 이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차(茶)를 마시는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된 인연이다.

차를 마시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경솔한 습성들도 조금씩 차분한 성격으로 바뀌었고, 일상 생활의 흐름을 좀 더 냉철히 응시할 줄 아는 수행자다운 여유와 멋도 지니게 된 것 같다. 만일 차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힘든 강원 생활에 있어 신심과 수행력이 부족한 나로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산산이 무너졌을지도 모를 것이다.

잡은 습의와 경책, 그리고 운력 등으로 몸의 중심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치문반 시절에도 난 잠시 틈이 생기면 발빠른 동작으로 지대방으로 달려가 차를 마시며 심신(心身)의 피로를 달래곤 했는데, 그로 인해 가끔은 도반 스님들에게 편잔을 듣기도

했다. 치문을 마치고 사집에 올라 온 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을 즐기는 일이 더욱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 차의 그윽한 향과 맛을 즐길 줄도 알게 되었다.

차의 맛을 더욱 섬세하게 느끼게 되면서부터 선기(禪機)도 함께 예민해져 가끔씩 도반 스님들과 선 수행에 관한 불꽃 튀는 담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심(茶心)이 곧 선심(禪心)이라면 어설피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쌓인 피로를 풀고, 순수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도반들과의 돈독한 우정도 쌓아간다는 점에서, 또한 일상 생활의 흐름을 자신의 수행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감히 다심(茶心)이 선심(禪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차와 수행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출가 생활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수행의 기초가 되는 계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과 고기는 물론 세속의 운동과 오락과도 같은 행위도 또한 철저히 금하다 보니 마음 편히 즐길 만한 게 그리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일은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옛부터 절집에서는 인기 높은 생활문화로서 자리잡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또한 유구하여 이미 스님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굳게 자리잡아왔다.

차의 종류 또한 많고 다양하지만 스님들이 자주 마시고 좋아하는 차로서는, 우리의 전통 녹차를 비롯하여 중국의 고산지대에서 재배 숙성시킨 오룡차와 보이차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특히 구수한 맛이 나는 녹차를 좋아한다. 사미계를 받고 강원에 들어와 처음으로 맛 본 작설차의 진한 향기와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에서일까? 나는 강원 생활의 크고 작은 희노애락과 온갖 역경들을 모두 차를 마시는 것에 의지하며 인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찌 나 홀로 도움을 받았을 뿐이겠는가?

## 지족(知足)

대정(大定) / 치문

많은 인원에 비하여 휴식공간은 비좁다 보니 ‘지대방 문화’라는 걸출한 생활문화를 창조해 낸 강당의 차 문화는 모든 학인스님들의 수행생활에 있어 시원한 감로수와도 같은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오늘도 오전 강의가 끝난 후, 지대방의 문틈으로 부서지듯 들어오는 감미로운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 주위의 도반 스님들을 가까이 불러 모은다.

“스님! 우리 차 한 잔 해야지!”

斜日西馳雨散東 詩囊茶碗小舟同  
雲開正滿天心月 夜靜微涼水面風  
千里思歸何所有 一身餘累竟難空  
誰知重疊青山客 來宿金波萬頃中

해는 서쪽으로 기우는데  
비는 동쪽에서 내린다.  
시객(詩客)과 다인(茶人)이 한 배를 탔는데  
구름 걷히고 둥근 달 떠오르니  
시원한 강바람이 밤을 삭인다.  
내 고향 생각 나는 건 무슨 까닭일까  
이 한 몸 찌꺼기 버리기 어려워라  
누라 알리요 해남 두륜의 객승(客僧)이  
이 강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을.

-초의선사

그토록 바라던 송광사 강원에 입방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비록 정신 없는 두 달이었지만 조금씩 강원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스님이 되어가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 어른 스님들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벌써부터 그러냐’ 라고 야단을 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시겠지만, 전생의 두터운 업장 탓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야 스님이 될 수 있었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족(知足)이란 단어가 불교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사스님의 법문 중에 자주 쓰이는 말이었기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되새겨보곤 합니다.

의상대사께서 지으신 법성계 중에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 비가 허공에 가득하지만 중생의 그릇만큼 받는다’ 라는 뜻이지요. 저는 이 법성

계를 대충 글자로만 이해했는데, 정작 송광사에서 한 철을 지내며 그 깊은 맛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족(知足)’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 있는 그대로가 칠보장엄(七寶莊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저 혼자만의 것이었다면 이렇게 드러내어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유마경에서 ‘온 법계가 칠보로 가득하나, 중생들이 어리석어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경구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몇 번이고 읽고 난 뒤 밑줄까지 표시해두었습니다.

정말 한 생각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모두 시선을 창 너머나 방문 너머로 돌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나무와 구름 한 점 없는 초여름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이 있기까지 온 법계가 연기(緣起)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예불을 드리러 가는 길에 나는 봅니다. 해당화의 앓은 꽃잎과, 단정히 안행(雁行)하는 도반 스님들의 뒷모습과 장엄한 종고루의 범고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서 온 법계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장엄한 세상임을 나는 봅니다. 이때는 환희심에 차 눈물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씩 한두 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경책을 주시는 윗반 스님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도반스님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제 스승이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자 도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에서 생겼음을 알고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도반스님들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을 보려했던 제 습관 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대중의 화합에 필요한 세 가지[和合三要]로 ‘보는 눈’과 ‘보여지는 모습’과 ‘교류’를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도반스님들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면 ‘보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도반스님들과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전 스님은 반장소임에 적격이라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스님이시고, 해안 스님과 서래 스님은 외국에서 오신 스님인데도 어려운 치문경훈을 잘 외우고 또 강원생활도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홍전 스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며, 연성 스님은 겸손하고 밝은 성품의 스님입니다. 무영, 동안 스님은 속랍이 짐작되지 않을 만큼 속이 깊고, 수원 스님은 치문반 최고 노장스님임에도 맑은 얼굴이어서 스님의 속 살림을 짐작케 합니다.

석원 스님은 솔직하고 밝으며, 홍서 스님과 용은 스님은 사이가 좋으며 컴퓨터를 많이 아는 스님입니다. 법운 스님은 누가 봐도 스님이라 할 만큼 늘 여법해 보이며, 해진 스님과 남전 스님은 치문 수업 때 항상 줄줄 외워서 도반스님들을 부럽게 합니다.

일행 스님은 늘 출선수범하는 모습에 도반스님들도 감탄합니다. 지명 스님은 과묵하게 맑은 소임을 잘 하는 스님이고, 해명 스님은 해박하며, 종백 스님은 화통한 성품이며, 진봉 스님은 염불도 잘하고 북도 잘 치며, 해여 스님은 학구파 스님이라 불릴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종안 스님은 어린이법회에 큰 원력을 세우신 스님이며, 여공 스님은 간경소리가 일품입니다. 끝으로 저는 목소리 크기로 윗반스님으로부터 인정(?) 받고 있습니다.

도반스님들의 장점을 쓰다 보니 더더욱 정이 갑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정혜사에 실려 몇 년 후 함께 읽으며 웃을 도반스님을 생각하니 괜히 웃음이 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좋은 점만 생각해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 내가 사는 송광사 강원

석원(石原) / 치문

꽃샘 추위가 한창인 3월초, 약간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송광사에 입방했는데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승가의 정신이 잘 이어져오고 있어서 중물을 들이는 데는 송광사 만한 곳도 없다는 은사스님의 추천으로 강원에 들어온 이후, 반쯤은 무언가 손해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누워서도 떡을 얻어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이곳을 추천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새벽 3시 기상부터 저녁 9시 취침까지 뻘뻘한 일정 속에 발을 맞추려다 보니, 반 년도 지나지 않았건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다. 5평 남짓한 지대방에 23명의 도반들과의 옥신각신한 삶도 이제는 몸에 익었고, 윗반 스님들과의 정도 돈독해져가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길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송광사 특유의 뜻심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웅장한 예불·장중한 공양·청명한 간경·서리발 같은 저녁공사·다정다감한 울력.

이 모든 것이 수행임을 알고 난 후부터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목은 늘 쉬어 있고

잠은 언제나 모자라고 몸은 축 늘어지고 배는 항상 고파도, 마음 속 꿈틀대는 어떤 힘을 느끼기에 살얼음 같은 하루 하루를 견디어 왔다.

도반 스님들과 나의 얼굴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들 맑아져 있다. 청정한 계를 지키면 몸이 맑아진다고 했던가? 송광사는 철저히 계를 지킨다. 적어도 안에서만큼은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나는 송광사에 희망을 걸고, 나 또한 이제부터 계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출가 후 처음 맞이하는 안거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탈 없이 보내기 위해 무장무애 기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치통으로 하루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다. 근기와 복덕의 미흡함을 한탄하면서 앞으로 남은 동안이라도 무사히 끝마치기 위해 오늘도 간절히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한다.

경전은 한문을 모르고서는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강사 스님의 가르침에, 한 자 한 자 옥편을 찾아가며 한 문장씩 해석해 나가는 그 맛도 참 좋다. 그저 바쁠 것도 없고, 누구에게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마음 속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정리해 가다보면 구절구절 조사(祖師)스님들의 자비로운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

밖에서 들어보면 간경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비유된다고 했던가? 차분한 목소리로 간경 하다보면 운곡도 저절로 알게 되고, 모르는 문장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그 맛 또한 참으로 좋다.

하루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루를 돌이켜 보며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참회하는 저녁공사 시간. 약간은 긴장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반성의 시간으로 삼는다. 그리고 삼경 이후의 참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대중화합을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하리라.

이처럼 긴장과 이완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는 엄격한 질서와 규범이 있고 윗반과 아래반의 조화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정진해 가고 있다. 나는 이 흐름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부디 아무런 장애 없이 송광사 강원을 졸업하기를 부처님 전에 다짐해 본다.



## 10분간의 사유

남전(南泉) / 치문

아침 6시 45분 상강례 시간. 깨끗이 닦은 고무신을 벗고 가사와 장삼을 수한 후 미리 자리에 앉는다. 15분전, 난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고요히 명상에 젖어든다.

방바닥에는 형광등 불빛과 햇볕이 교차되어 방안을 밝히고 있다. 또 햇빛은 항상 등과 뒷머리를 거침없이 내리 쬐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서 움직이므로, 좀 있으면 들어올 뒷반 스님들의 시야에 고스란히 들어 갈까봐 다른 도반 스님들보다 배로 마음 부담이 크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반개(半開)한 채 가만히 있다.

앞쪽 벽면에는 삼함(三緘)이란 글자가 굵직하게 써서 붙어 있는데, 이 삼함이란 글은 치문에서 본 적이 있는 글자다. 입을 세 겹으로 꿰매어 구업(口業)을 잘 다스리란 뜻이다. 하지만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여어(如語), 실어(實語), 불망어(不妄語), 불이어(不異語)에 준하여 입을 열 수 있을까. 오랜 세월 깊은 수행을 쌓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착석 후 5분이 지나면 사집반 스님들이 들어와 앉는다. 우리보다 한 발 앞에 줄을 지어 나란히 앉아 있는 이 분들은, 그 어딘가 예전부터 닦고 익혔던 난행(難行)의 기쁨이 옷자락 끝에서 배어 나온다. 한 걸음 앞에 나아가 앉기까지 1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곳 송광사 강원에 방부 들인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드는데 저분들이야 오죽 하였을까. 수행은 글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잘 살피어 진실한 부처님의 뜻에 계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지금 나보다 한 발 앞에 앉아 있지만 그 한 발이 정말 한 걸음뿐이겠는가? 보통 근기로는 1년이 지나더라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다시 5분이 지나니 사교반 스님들이 들어와 앉는다. 무거운 침묵 속에 위의(威儀)는 더욱 엄숙하며, 정다운 시선 혹은 무서운 눈초리를 하던 스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두들 정숙한 분위기에 동화되어 고요하기만 하다.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대교반 스님들이 가끔 옷깃을 스치고 옆을 지나가면, 나는 다시 자세를 방정(方定)하게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다. 이 시간은 지대방에서도반스님들과 같이 어울려 떠들썩하게 지내던 시간과도 다르고, 강의시간처럼 글공부에 파묻혀 옛 박학대가(博學大家) 선현들과 씨름하며 자신을 탐마하는 시간과도 다르고, 예불·공양 시간과도 다르다. 지금은 그야말로 그 어떤 분위기에든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자유시간인 것이다. 하루 중에 그 어느 때가 지금처럼 정신이 맑고도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상강례 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설계를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좋은 시간이다. 우리가 저마다 누리는 시간 속에서 불도(佛道)를 향해 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단지 대중 생활 속에 파묻혀 나 자신을 잃어 버리고 허깨비를 잡으려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 몸 받기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다만 대중생활에 매몰되어 안일하게 본분사를 잃어버리고 허송세월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속세에 있으면서 단 하루라도 인천(人天)에 뛰어난 보살행을 닦는 것만 못할 것이다.

대중스님들이 다 모이고 마지막으로 강주스님의 말씀들을 듣고는 종소리와 함께 다시 바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그리고 상강례가 끝나고 이와 같은 반복되는 생활을 앞으로 몇 년이나 해야 하는가 생각해본다.

‘나무 석가모니불’이다.

## 쪽지 자경문(自警文)

동안(同安) / 치문

거룩하신 부처님과 그 존귀하신 가르침과 모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죄업들과 오늘도 먹을 것을 탐내고, 수면에 빠지며, 여색에 꼬달려, 재물을 축적하며 허망하게 명예를 좇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들을 참회하옵니다.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도 당신과 같이 현실을 직시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을 가지게 하소서. 오직 갈 길이 바빠 미친 듯이 나아가게 하소서. 다시는 엄병덤병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겠나이다. 하나 저 또한 아직 눈 밝지 못한 중생이라, 이 마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당장 펜 놓고 마음 하나 풀어지는 순간 깨어지진 않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만약 다시 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한탄과 한숨 속에서 헤매야만 겨우 추스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요.  
하지만 부처님, 오직 이것만은 당당히 증명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펜을 들어 애절하게 너무도 간절히 나아가려는 마음을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이러한 때가 있었기에, 꼭 이루어야 한다는 실낱같은 뜻만은 저 또한 잊지 않아서, 다시 넘어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꼭 다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해맑은 모습으로 어깨동무하고 춤출 날이 오리라 맹세합니다.

얼마 전 송광사에서는 가벼운 식중독으로 대중스님들이 잠시 슬렁거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사시공양의 콩비지로 판명됐지만, 사실 음식이 그리 쉽게 변할 만큼 더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양 후 갑작스런 구토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나 몸이 좀 나아져서 신문 여백에 치문의 몇 구절을 적어 보았습니다.

稟父母之遺體<sup>하야</sup> 假衆緣而共成<sup>이로다</sup>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몸을 받아서  
여러 인연들을 빌어 함께 이루어짐이로다  
雖乃四大扶持<sup>나</sup> 常相違背<sup>하야</sup>  
비록 이러한 사대를 붙들어 가짐이나  
항상 서로 어그러지고 등져서  
無常老病<sup>이</sup> 不與人期<sup>하야</sup>  
무상한 늙음과 병고가  
사람과 더불어 기약치 아니하니  
朝存夕亡<sup>이라</sup> 剎那異世<sup>로다</sup>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짐이라  
찰나에 다른 세상이로다

이 글이 그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몸이 한끼 공양 후 졸지에 차에 실려 병원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불치의 병이나 죽음의 때라도 닳았더라면 글에서처럼 다른 세상에 있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닳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저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도 이미 하반신을 넘어 몸 전체로 마비가 진행 중이어서, 대소변과 식사

까지도 그분의 연로하신 어머니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참으로 병고(病苦)는 사람의 늙고 젊음과 건강하고 편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은 모든 일들이, 언젠가 내가 다시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당장 저 자신의 위태로움은 제쳐두더라도,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저 속세의 소중한 인연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품 속에서 떠났던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더 크게 안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이렇게 흘러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치가 분명한데도, 정작 스스로는 절실히 체감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땀흘려 얻은 것들로 저에게 베풀어주건만, 저는 오직 받기만 하였을 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피땀 어린 시주물을 받아 쓰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제 자신의 끝없는 욕심의 잣대에 비추어 늘 부족하다 불평만 해댁니다.

제가 이렇게 못한 놈, 이렇게 용기 없고 한심한 놈입니다. 그렇다고 등한시하고 있을 일도 못되지요. 지금 이 순간도 한쪽에선 굶주림과 가난, 또는 육체적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선 끝없는 욕망과 허명(虛名)을 쫓아 수 없는 죄를 지으며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는 반복과 반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으며, 수 없는 부처님과 성현들이 출현했건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날까지 헤매고 있습니까?

이제 간절히 부처님과 먼저 가신 이들에게  
바라옵나니,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저 바른  
길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그 어떤 장애나 힘겨운  
인연들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받아내고 이겨내어  
곳곳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훗날, 저 혼자 높고 높아서 자유롭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함께 최상의 안락  
속에 자유로울 것이되,

지금은 아무 힘도 없기에 스스로 모든 힘을  
갖추기 위해 오직 나아갈 뿐입니다.

지옥 중생이 온몸 가리거리 찢어지는 고통받을 적에,  
나는 이 살덩어리 하나 편하려 했고

아귀 중생이 배고파 울부짖어 목에서 불길 솟을새,  
나는 세기 공양에 맛을 탐하였네

축생들 두려움에 몸 움츠리며  
또한 서로 할퀴어 잡으려 하고,  
밝지 못한 숙업으로 날땀에  
나는 되려 그런 삶 쫓진 않았는지.

수라들 성내는 불길 속에 엮매어 살 제,  
나는 과연 적정한 출가수행자였는지...

사람들도 고락의 반복 속에 헤매어 살고,  
하늘도 떨어질 날 분명 있나니,

오로지 내가 갈 길은,  
지옥 속에서도 안락할 수 있고  
아귀 속에서도 포만할 수 있으며,  
수라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한 마음 찾는, 공부길 뿐이라네

## 은사스님께

해진(海眞) / 치문

스님 해진입니다.

더운 여름 안겨, 선방스님들은 정진 잘 하시는지 사중 불사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대중스님들 돌보시느라 스님께서서는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스님 곁을 떠나서 새로운 대중에 참여한 지도 벌써 여러 달 지났습니다.

발심 출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세속의 삶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채 입산하여 꼬박 3년을 모셨군요. 유달리 어린 상좌를 아껴주셨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구절마다 가슴에 다가오는 이유는 조금씩 철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지요.

“몸뚱이는 천만 개라도 네 것이 아니다. 몸뚱이 망상에 속지 말아라.”

처음 삭발하고 행자복을 입은 후 삼 배를 드릴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엄숙해서 그랬는지 부끄러움과 환희심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끝없는 번뇌와 망상이 모두 몸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불만과 짜증이 일어날 때마다, 바깥 경계를 탓하며 제 한 몸 편안코자 잔피를 부리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첫 말씀을 되뇌여 봅니다.

시비하고 성내던 마음도 스님 슬하에서 많이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잠자리 시봉을 하면서 9시 뉴스를 시청할 때마다 일어나는 시비분별에 머리를 내려치며 경책 해주셨지요.

“이놈아 네 살림이나 신경 써! 부끄러움도 모르고 까불지 말고, 제 몸뚱이도 단속 못하는 놈이……. 시비진심 한 번에 평생 공부가 사라진다.”

처음엔 아픈 머리를 어루만지며 불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상을 내어 시비하고 그 시비에 또 다시 진심을 내는 제 모습 보게 되었고, 얼음같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 와서 도반들과 생활하다보니 어른이 안 계신다는 생각에 어느새 교만과 아상이 다시 올라와 못된 버릇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끝없는 시비분별에 쉽 없이 경책하시며 시비와 진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신 법은(法恩)에 어느새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느 날인가 일하는 처사들이 남긴 불어터진 라면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음식 남기면 축생보를 받는다. 과보를 다 갚을 때까지 돼지, 소로 태어나야 한다.”

그릇을 넘겨받아 퐁퐁 끓은 라면을 먹을 때는 경전에서 익히 들었던 말이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며 지나쳤지만, 요즘 발우를 펴서 밥을 먹을 때 마다 시은의 무서움을 조금씩 느껴봅니다.

행자 때 범명 바뀌달라고 포행길 따라다니며 조른 일, 새벽 예불 시 숨어서 잠자다 들켜서 혼난 일, 국수 사 먹으러 무단외출했다가 걸려서 죽비로 경책받은 일,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일, 운전면허 연습하다 스님 보시는 앞에서 사고 낸 일, 밤 늦도록 사제랑 이야기하다가 조실채 문이 잠겨서 창문 넘어 들어가다가 발각된 일…….

가끔씩 스님을 모시던 동안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도반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비스러운 경책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를 돌아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강원에 처음 방부를 드린 후 봄 산철을 마치고 초파일 방학을 맞아 인사드렸을 때 웃음지으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보시게, 한 마음 비우시게나!”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멋모르게 치달리고 있는 자존망대(自尊望待)한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슴프레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예불, 부처님 전에 예배드리며 모든 걸 비우라고 하시는 스님의 경책을 거울삼아 하루 동안 쌓인 업장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상좌를 품에 안고 묵묵히 알려주신 법은을 생각하며 어색한 감사의 말씀을 띄워보냅니다.

법체 안온하시길 발원하오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미좌(迷佐) 해진 구배(九拜).

## 보리 이야기

정공(正空) / 사집

한 친구가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여름날, 송광암에 수련회를 갔더란다.

그곳에는 대웅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앉아 먼 곳을 향하던 11살 박이 ‘보리’가 있었다. 사람이 와도 본척 만척 짓지도 않고 그저 망울진 두 눈만 꿈적이던 ‘보리’는 관광객들이 와서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무심하더란다.

“스님,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윈다더니, 절 밥 10년 먹고 ‘보리’도 도인 됐나봐요.”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주지스님께서는

“하이고, 말도 마소. 그 녀석이 얼마 전에 마을에 내려가서 염소를 물어 죽인 탓에, 내 염소 값 물어주느라 애먹었다고. 나도 저 녀석에게 속았지. 속지 마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보리를 바라보니, 보리는 여전히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더란다.

“보리야! 다음부터는 마을에 내려가지 마라.”

일찍이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雖有才智나 居邑家者는 諸佛이 是人에 生悲憂心 하시고  
設無道行이나 住山室者는 衆聖이 是人에 生歡喜心 하나니라

사람들이 세속을 버리고 굳이 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변해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보리’같은 축생도 오래도록 절 밥을 먹으면 도인을 닮아 가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주변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을 성취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비록 재주는 없을지라도 조용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조금씩 훈습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희심을 낸다는 이야기이리라.

요즘은 간혹 마을에만 내려가면 ‘보리’가 그랬던 것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스님들이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 어찌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만 바쁘다. 중은 절에 있어야 제 맛이 난다. 참 중답게 사는 길. 다행히 송광사는 중들이 살 만한 도량이다. 그냥 함께 살기만 해도 향내가 물씬 났을 것같은 도량이다.

오늘 그 친구가 보리에게 했던 말이 새롭게 들린다.

“스님! (쓸데없이) 마을에 내려가지 마세요.”

## 覺林菩薩의 讚歎

연일(然一) / 대교

爾時에 覺林菩薩이 承佛威力<sub>하사</sub> 徧觀十方<sub>하고</sub> 而說頌言<sub>하사대</sub>

이때에 각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하시고 송으로 말씀하시되

譬如工畫師가 分布諸彩色<sub>하고</sub> 虛妄取異相이나 大種無差別이니

비유하건대, 마치 공화사가 모든 채색을 나누어 바르는 것과 같이 허망되이 다른 상을 취함이나 대종은 차별이 없으니

여기에서 공화사는 心을 뜻하고 彩色은 六識을 뜻하며, 대종은 地水火風 四大를 뜻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화가가 그림을 그려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에 비유를 했다.

각자가 세계를 인지하는 것은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등에 의해 종합되고 결정되지만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에 다르게 나타난다.

어떠한 사물의 실체를 볼 때 無常하고 空한 緣起實相에서 보지 못하고 각자의 틀에 고정시켜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허망 된 여러 상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세계를 형성하는 대종[四大]은 차별이 없다. 사대는 능엄경에 七大을 설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일체세간의 변화하는 것이 다 사대의 화합으로 인하여 發明한다고 한다.

이 사대가 화합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虛空이 諸色과 和合하지 않는 때와 같이 모든 변화는 멈추게 될 것이다.

사대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지수화풍 각자의 性品이 空하기 때문이다.

大種中無色이며 色中無大種<sub>이로대</sub> 亦不離大種<sub>하고</sub> 而有色可得<sub>이로다</sub>

대종 가운데에는 색이 없으며 색 가운데에는 대종이 없음이나 또한 대종을 여의고는 색을 가히 얻지 못함 이로다.

地水火風에는 색이 없다. 능엄경에서 날날이 예를 들어 파하는데 여기서는 地의 예만을 들어 보겠다.

地의 性品을 觀하면 큰 것은 大地요, 작은 것은 微塵이다. 극히 미세한 色邊際相을 七分하면 隣虛塵이요, 인허진을 나누면 虛空이 남는다.

地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허공만이 남는 것이다. 이로써 地의 性은 色相이 업는 空性임을 알 수 있다.

四大를 여의고 색을 가히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계는 四大의 和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한다. 四大의 性은 空하지만 서로 緣하여 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心中無彩畫<sub>하고</sub> 彩畫中無心<sub>이로대</sub> 然不離於心<sub>하고</sub> 有彩畫可得<sub>이로다</sub>

마음 가운데 채화가 없고 채화 가운데 마음이 없음이 로되, 그러나 마음을 여의고 채화를 가히 얻지 못함 이로다.

앞의 계송에서 大種과 無色을 들어 法을 나타냈다면 여기에서부터는 心과 彩畫를 들어 法을 보이고 있다.

화엄철학 중에 四法界의 철학이 있다. 화엄종 조사 두순스님의 뛰어난 논서인 '법계관문'을 통하여 계송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理法界는 본체 혹은 원리의 경계로 각종 理 가운데에서도 궁극적 理, 즉 우주적 一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空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계송 중에서는 大種, 心, 佛로 비유된다.

四法界는 현상 혹은 사건이 경계로 모든 사물이 서로 다른 분명한 대상이나 사건으로 드러나는 현상세계이다. 계송 중에서는 彩色, 色, 彩畫, 世間으로 비유된다.

마음 가운데 彩畫가 없고 彩畫 가운데 마음이 없다는 말은 理事無碍法界의 眞理非事門과 事法非理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참 理는 事가 아니라는 말은 물과 물결을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眞理에 대비되는 물과 事에 대비되는 물결은 성품 면에서는 같으나 작용면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움직임과 습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물들과 사건들은 理가 아니라는 말은 事가 전적인 이(理)로 구현되어 언제나 理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결이 물에 전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해도 물결이 항상 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을 여의고는 색을 가히 얻을 수 없다는 말은 依理成事門으로 설명된다. 事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事가 理로 인해 성립되는 것은 모든 연기하는 것들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無自性으로 인해 모든 사물들이 生하기 때문이다.

彼心恒不住<sup>하야</sup> 無量難思議<sup>라</sup> 示現一切色<sup>호대</sup> 各各不相知<sup>로다</sup>

저 마음이 항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무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움이라. 일체 색을 나타내 보이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함이로다.

마음은 머무름이 없기에 대상에 緣하여 무량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작용을 지어 일체의 색을 나타내 보인다. 마음이 만약 住함이 있다면 고정되고 조건되기 때문에 일체가 변화하지 못하며 세계가 성립하지도 못한다.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현상세계의 모든 색이 대상을 緣하여 일어나고 작용하나 각각 서로를 認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강물이 흐를 때 물이 바위와 폭포와 계곡 등을 인지하지 않고 순응하여 흐르는 것과 같다.

譬如工畫師가 不能知自心<sup>호대</sup> 而由心故畫<sup>인달하야</sup> 諸法性如是<sup>로다</sup>

비유하건대, 공화사가 능히 자기 마음을 모르되 마음을 말미암아 그리는 것과 같이 모든 법성도 이와 같음이라.

공화사는 心이며 心은 각각 서로를 알지 못한다. 공화사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마음의 성품이 空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空하기에 대상에 반영하여 무수한 작용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말미암아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다. 法性도 또한 이와 같이 空性에 기반을 둔다.

心如工畫師<sup>하야</sup> 能畫諸世間<sup>하며</sup> 五蘊悉從生<sup>이나</sup> 無法而不造<sup>로다</sup>

마음이 공화사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리며 온이 다 이로부터 생함이나 법 없이는 짓지 못함이다.

마음이 공화사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모든 세간을 형성한다. 세간을 구분짓고 형성하는 色受想行識의 五蘊도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지어진 것이다. 萬法이 一心이며 一心 밖에 지어지는 것은 없다.



如心佛亦爾<sup>하며</sup> 如佛衆生然<sup>하니</sup> 應知佛與心이 體性皆無盡<sup>이로다</sup>

마음과 같이 부처 또한 그러하며 부처 또한 중생과 그러하니 응당 부처와 마음의 체성이 모두 다함 없음을 알음이로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모두 體의 性品이 空하다.

若人知心行이 普造諸世間<sup>하면</sup> 是人則見佛<sup>하야</sup> 了佛眞實性<sup>이로다</sup>

어떤 사람이 널리 모든 세간을 심행이 짓는 줄 알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보고 부처의 진실성을 요달하리라.

능가경에 ‘如來·空·際·涅槃·法界 등의 여러 意身이 모두 마음이다. 外道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간에 지은 바 모든 것이 心이며 心性和 佛性이 같기에 心의 體性을 알면 佛의 眞實性을 아는 것이 된다.

心不住於身<sup>하며</sup> 身亦不住心<sup>호대</sup> 而能作佛事<sup>하니</sup> 自在未曾有<sup>로다</sup>

마음이 몸에 주하지 아니하며 몸 또한 마음에 주하지 아니하되 능히 불사를 지으니 자재함이 미증유로다.

마음이 몸에 住한다면 과연 어느 곳에 住한다는 말인가? 죽은 사람의 몸에는 왜 마음이 없는 것일까? 몸이 마음에 住한다면 마음은 고정된 형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고정된 형상이 없다.

마음과 몸이 無碍하여 서로 住하는 바가 없으며 서로를 障礙하지 않아서 일체 모든 佛事를 自在로 이 짓는다.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sup>인댄</sup> 應觀法界性에 一切唯心造

나라

삼세의 일체 佛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을 관하라,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니라.

三世의 일체 佛을 알고자 함인데 왜 法界의 성품을 觀하라고 한 것일까?

三世에서 과거는 이미 지났기에 구할 수 없고, 현재는 계속 변화하기에 구할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구할 수 없다. 오직 현재 찰나의 一念만이 있을 뿐이다.

三世의 부처님이란, 현재의 一念이며 이 一念이 法界 자체이다. 法界는 온 우주를 포용하여 털끝만큼도 벗어나는 것이 없으므로 이 모든 세계는 오직 현재의 一念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법계의 성품이 空性임을 觀하는 것이 현재 一念의 성품을 보는 것이며 佛性을 보는 것이다.

출전 : 화엄경 권 19 승야마천궁품

## 大慧스님의 無字話頭 參究法

일조(日照) / 사집

無字 화두는 임제종에서 가장 좋은 화두 중에 하나로 삼는다. 無字 화두란 무엇인가?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물어보았다.

“개가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주 스님께서 대답하기를

“없다(無).”

라고 했다.

大慧스님이 여러 처사님들에게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 했을 때에 무자 화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배웠던 편지 중에 그 화두는 富樞密 처사와 陳少瑯 처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나온다.

富樞密에게 보낸 편지에서 大慧스님께서 화두를 들 때의 열 가지 병통을 말한다. 나중에 普照 스님으로부터 소위 ‘無字話頭十種病’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다.

1. 간절히 마음을 두어서 부서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2. 有·無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라
3. 道理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4. 意根 아래를 향하여 사랑으로 헤아리지 말며
5. 눈썹을 드날리고 눈을 깜박거리는 곳을 향하여 뿌리를 박지 말며
6. 언어의 길을 향하여 살림살이를 짓지 말며
7. 일 없는 가죽 껍질 속을 향하여 드날려 있지 말며 (無記空病)
8.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잡아 해결하려 하지

말라

9. 文字 가운데를 향하여 引證하려 하지 말고

10. 迷精을 가지고 깨쳐질 때를 기다리지 말라

이 열 가지 병통의 포인트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알음알이로 分別思量으로 화두를 참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無字 화두는 알음알이와 知見을 꺾는 무기라고 한다.

此一字子乃是摧許多惡知惡覺底器仗也

이 무자화두는 많은 악지악각을 꺾는 무기이다.

이 경우에는 ‘알음알이로 하지 말라’는 ‘不知’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앉을 때에 혼침에 들지 말며, 또한 도거하지 말라’(坐時不得令昏沈亦不得掉舉)라고 하였다.

昏沈이란 졸리는 것이며, 掉舉란 화두를 들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병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쉽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힘써 물리쳐 보내지 않아도 ‘두 가지 병’이 당장 고요해진다고 제시했다.

但只舉狗子無佛性話兩種病不着用力排遣當下怙怙地矣

단지 무자화두를 들어 두 가지 병이 힘써 물리쳐 보내지 않아도 당장 고요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혜 스님이 '잊지 말라'라는 '不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시(不知와不忘)들이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不知는 '疑心思量早不是也' 또 '百不思時喚作正句'라고 하며 不忘은 '行住坐臥不得放捨' 등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눈에 띄게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올바르게 지키면 着이 또한 看破라는 게 생긴다. 정확히 말하면 不知와 不忘을 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看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不知와 不忘함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둘 다 疑情에서 생긴다. 사실 疑情이 없으면 話頭의 不知(바보의 不知—無識함이 아니고) 그리고 바른 不忘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禪에 대한 책을 많이 보았다. 대부분 일본 선사들이 쓴 책들 말이다. 책마다 坐禪만, 앉아 있는 방법만 설명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이란 것은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바꿨다. 정말, 좌선은 가장 편안한 방법이지만 앉을 때만 화두 참구를 한다면 백천만 년 노력해도 이를 수 없을 것 같다. 글공부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 글을 공부하면서 개념이 잡힌다. 좌선을 하면서 감이 잡힘으로부터 수행문으로 들어간다.

서장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대혜 스님이 소소한 점까지 참구법을 가르쳐 주지만, 수행의 목적문제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아다시피 깨달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사의 苦海를 건너기 위한 것도 아니다. 대승 가르침대로 나만이 아닌 온 한 없는 우주의 온갖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다.

앞으로 배울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언급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벳 불교는 중생을 제도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중생을 제도함으로 끝난다. 이 동기가 없으

면 대승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許司理 거사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大慧 스님이 제자한테 참선의 옳은 방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쓴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뜻이 아주 깊다. 大慧 스님이 許司理居士에게 법호를 지어 주었다. 湛然이란 이름 말이다. 깊고 고요한 것이란 뜻이다. 世間 出世間(有爲와 無爲)법이 여의지 않는 본래 마음·佛性·如來藏·空이란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는 있는데 禪師 스님이 가장 멋지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말이 있다.

只以此印 於一切處 印定 無是無不是 ——解脫 ——明妙 ——實頭

이 도장으로 일체 곳에 찍어 정하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 모두 해탈이며 하나하나 명묘이며 하나하나 모두 참다움이다.

湛然이란 이름의 도장으로 一切處를 찍으면 一切處는 湛然이란 이름을 받는다. 그런데 一切處가 이름만 바꾸면 총체적으로 그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품의 도장으로 찍어야 一切處의 성품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앞의 화두를 들이대어 생사심을 타파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가 살았던 러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10월혁명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싶어했는데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자본의 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마음의 만족함이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苦海를 건널 수 없고 生死 벗어남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국, 유럽, 러시아 등등 나라에서 퍼지고 있다.



#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들, 고통받는 자·병든 자를 위하여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온갖 종류의 고통 속에서 아픈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빈곤, 외로움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약 받지 못한 생명을 아픔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을 되찾아 준다면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살아 불만한 가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한국심장재단과 결연하여 심장병 환자 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푼푼이 모은 작은 사랑의 손길로 새 생명을 찾아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볼 때, 이러한 성금 모금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새 생명을 찾아 줄 후원자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뜻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9. 9. 21	1차 환자 지원	2000. 9. 5	9·10·11차 환자 지원
2000. 2. 8	2차, 3차 환자 지원	2000. 12. 12	12차 환자 지원
2000. 3. 28	4차, 5차 환자 지원	2001. 3. 12	13차 환자 지원
2000. 4. 4	6차 환자 지원	2001. 4. 17	14차 환자 지원
2000. 5. 23	7차 환자 지원	2001. 6. 19	15차 환자 지원
2000. 6. 27	8차 환자 지원		

현재(2001. 7월) 15명의 지원 환자 중 11명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우체국 온라인 : 503466-02-058950    ● 예금주 : 김 홍 제
-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 보월 (061)755-5302

☞ 직접 결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207호  
 총무과 황영옥 과장 (☎ 02-416-8763)

## 편집후기

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승려로서의 첫 걸음을  
 드리우며  
 때문지 않은 순수함으로  
 써 내려간 한 편의 글.  
 행여나 그 맑은 눈동자에  
 오히려 한 점 티끌이  
 되지는 않았는지……

## 꽃지 이야기

舜若多性 可銷亡  
 爍迦囉心 無動轉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 순야다(舜若多); 허공
- 삭가라(爍迦囉); 견고

-능엄경 권3-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송광사 주지스님, 석천사 주지스님, 현정옥, 김갑숙, 류인석, 이영숙, 전인옥, 김동수, 삼매월, 양동언, 박동운, 대각성, 조호일, 이현임, 김경열, 나정숙, 김현정, 신증녀, 서귀자, 이현재, 제영안, 윤한식, 광미숙, 남봉순, 임영은, 김미향

## 대중 보시 하셨습니다.

울주스님, 주지스님, 총무스님, 원주스님, 총무원 교육국장스님, 무각사, 성원사, 개암사, 광양 보광사, 원효사, 대원사, 서울 길상사, 통도사 비로암, 통도사 지장회 예수재회원 일동, 열린마음법우회, 함재정, 강정우, 허보련성, 법련화, 안순자, 동훈이보살, 상무주암 순례자

## 강원 발전기금 도와주셨습니다.

순천후원회, 광양후원회, 유식학인회, 광주송원회, 창원후원회, 묘희심, 김진성, 이병학, 윤상석

##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서울 보문사, 서울 약사암, 상주 법화사, 부산 묘관음사, 고흥 능가사, 서울 무루회, 부산 불암사, 나주 불회사, 여수 석천사, 육바라밀회, 진주 불일회·강원후원회, 광주사암 연합합창단, 광주반야회, 아련야, 박세진, 안대순, 무연화, 지혜장, 안대지행 외.

※지면관계상 자세히 신지 못해 죄송합니다.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호평과 질책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직은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정혜사에 보내주시는 불자님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작은 정성이 더해진다면 더욱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6-00446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1)755-5302

■ 주소가 바뀌신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5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 방부받는 반

사미반 .....	신입 00 명
치문반 .....	편입 0 명
사집반 .....	편입 0 명
사교반 .....	편입 0 명

### ■ 자 격

- 사미반 :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치문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 제출서류

방부원서 .....	2부(강원 소정양식)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전학증, 수료증(편입생) .....	1부
사 진(3×4) .....	3매
건강진단서 .....	1부
방부금 .....	30만 원

- 준비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5년 9월 5일 ~ 10월 5일
- 문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 地藏殿

어여시 앓은 몸매 병그시는 娥眉 앞에  
 合掌하고 옆드리면 선듯 바로 덮시실 듯  
 보고픈 父母생각에 작구작구 뵙니다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中 -

### 地藏殿

1962년에 지어졌으나 전 대웅전과 같은 시기에 옮겨져 선방 부속 건물로 쓰이고  
 그 자리에 새 지장전이 들어섰다.